"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6호 HYUNBULNEWS.COM 2025년 11월 26일(음력 10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아들아 억울함 풀고 마음 편히 쉬렴"** 산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가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체감 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한파에도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이 모두 극락왕생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발원했다. 2년 전 디엘이엔씨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고 강보경 씨의 어머니 이숙련 씨가 오열하며 아들의 위패를 어루만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글=임은호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 조계종 원로의원 도영 대종사 원적

**20일 완주 송광사 약사전서**
**종단 포교 기틀 마련 선지식**
**24일 금산사서 원로회의장**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조실인 금산당 도영 대종사(전 조계종 포교원장·사진)가 11월 20일 오전 5시 20분 완주 송광사 약사전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5년, 세수 84세.

도영 대종사는 1941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60년 김제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통도사 극락암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 정진했다.

금산사 주지를 맡아 가람을 일신하고, 전북불교회관과 죽림정사 등을 건립하며 불교 현대화에 기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수행과 포교에 진력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금산사와 완주 송광사 조실로 후학들을 제접했다.

도영 대종사는 지난해 본지 기획 연재 '지상백고좌'를 통해 불자들에게 지상법문을 설했다. 이는 대종사의 마지막 불교계 언론 인터뷰가 됐다.

당시 도영 대종사는 '보살의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대종사는 "보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中道)'이다. 넘치지 않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면서 "주변부터 진실하게 챙기는 보살의 삶을 서원하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영 대종사의 영결·다비식은 11월 24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 美 떠돌던 신흥사 '시왕도' 70년 만에 환수

**신흥사 · 메트로미술관, 11월 14일 협약**

**미군정 시기 반출 추정 1점 반환**
**민간단체서 시작…"반환 본보기"**
**2020년 6점…10점 중 7점 제자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전쟁 이후 미군정 시기 미군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속초 신흥사 '시왕도' 일부가 7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특히 이번 반환은 본 소장처인 신흥사와 민간단체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주도로 2023년부터 반환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이룬 성과로, 한국 불교 회화사뿐 아니라 문화유산 반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국외소재문화재단(사무총장 곽창용, 이하 재단),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이사장 이상래,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14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관장 겸 CEO 맥스 홀라인, 이하 미술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술관 소장 불화 '시왕도'를 본 소장지였던 신흥사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기로 했다.

'시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서 심판을 주관한다는 열 명의 대왕을 그린 불화로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번에 귀환한 신흥사 '시왕도'는 1798년(정조 22년) 조성된 '제10오도전륜대왕도(第十五道轉輪大王圖)'다. 가로 91.4cm, 세로 116.8cm 크기로 정교한 필선과 채색이 돋보인다. 원래 신흥사 명부전에 걸려 있던 불화로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역사적 중요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42년 일제 조선총독부가 전국 주요 사찰의 재산 목록을 조사한 기록에는 시왕도가 남아 있으며 1953~1954년 미군 장교들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상래 위원회 이사장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경, 속초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에 의해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 측은 2007년 시왕도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초 신흥사 시왕도 중 제10오도전륜대왕도. 사진 제공=메트로폴리탄미술관

신흥사 '시왕도' 반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미국 LACMA(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6점의 '시왕도'가 이미 한국으로 돌아왔고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위원회와 신흥사는 2020년 6점 반환 후 나머지 시왕도를 찾기 위해 조사에 임하던 중 미술관 누리집에서 시왕도를 확인했다. 이후 2023년부터 미술관과 협의를 시작, 실태조사를 통해 작품이 신흥사 '시왕도'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술관에 공식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7월 재차 방문 협상에서 반환 합의라는 결실을 맺었다.

미술관은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소장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화유산의 본래 의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며 글로벌 문화기관으로서의 성숙한 책임감과 문화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국가유산청과 재단도 민간단체를 지원하며 문화유산 반환과 국제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쓴 사례이기에 더 뜻깊다.

신흥사와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는 나머지 시왕도 3점의 행방을 찾아 환지본처 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법 철회하라"

**조계종 중앙종회, 19일 성명**
**의장단 · 상임분과위 입장문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최근 세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속개한 제236회 정기회에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고,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제행사가 아닌 천주교의 선교를 위한 종교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안에는 △시설 신축비를 지원한다 △수익사업을 허용한다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등 불법적인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며 "헌정사상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사례는 없다. 정교 유착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특별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 위원장들도 11월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법은 헌법 정신과 국회의원의 의무에 어긋나는 입법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종교적 균형과 조화를 해치고 국민과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승려복지 및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후원 동참 안내

무량공덕 쌓는 승보공양
우리 종단은 스님이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는 출가 수행자의 교육·의료·주거·소득·장례 등 완전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사찰,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의 승보공양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를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원금 지원 내용

| 스님 복지비 지원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지원 |
| --- | --- |
| - 진료비 지원<br>-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br>- 국민건강보험료 지원<br>- 정밀건강검진비 지원<br>-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 진료비 지원<br>- 병원 운영 및 개선비 지원<br>- 제2병동 건립<br>* 재가불자 이용 가능 |

후원 동참 방법
• CMS 자동이체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전송 (사찰 종무소 비치,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전화 신청 : 02-2011-1981, 1982 / 010-2926-1726(토,일 휴무)
• ARS 전화 후원 : 060-700-1077(1통화 5,000원)
• 계좌이체 후원
- 승보공양 : 농협 301-0324-8575-91 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회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농협 317-0027-0531-51 의료법인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

문의
• 승려복지회 : 02-2011-1981 / 010-2926-1726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02-2011-1982 / 031-677-2613 1752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 승보공양 후원 시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연말소득공제 및 기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 위의를 잃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자비를 펼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은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 조계종 정기종회 폐회…직선제 등 질의

**11월 19일 조계사 안심당서 속개**
**의원 81명 중 63명 참석해 '성원'**
**가톨릭 특별법 철회 성명서 채택**
**은적사특위, 찬성13 · 반대22 부결**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종회의원 스님들이 '은적사비리진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집행부를 향한 강도 높은 종책질의를 쏟아 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중앙종무기관의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원론적 답변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 직선체 추진 여론', '승적관련특별조치법' 등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질의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비구니 초심호계위원 신설' 종헌 개정안 부결 이후 종회 불참을 선언했던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모두 참석해 재적의원 81명 중 63명으로 성원됐다.

본격적인 종책질의는 총무원 총무부와 기획실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다른 질의는 문건으로 대체됐다.

### 총무원장 직선제 여론 수렴

대진 스님은 내년 치러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종도들의 의견 수렴 방안을 총무부에 물었다.

이에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는 인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수렴과 종헌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과 관한 논의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 종단적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 승적관련특별조치법 문제 제기

종단이 2013년 제정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질의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종단 내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출몰하고 있어 이런 소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종단의 적극적인 문제 검토와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은 2013년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숙의와 합의를 거쳐 제정된 입법적 결단이었다"며 "승가의 화합을 저해하려는 시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종단의 근간을 지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다수 의원 스님들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청와대 불자회장 논란

최근 가톨릭 신자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불자회장으로 내정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현재 청와대 불자회장 임명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강 비서실장은 불교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다음 주까지 의견을 조정해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반대 성명 채택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받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4개 사찰에 대한 종단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했다.

또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의가 제출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법안 철회를 위한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은적사비리진상특별위원회' 구성은 장시간 논의 끝에 거수 표결을 진행, 의원 56명 중 찬성 13표, 반대 22표로 부결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11월 19일)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정기회를 폐회했다.

#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원산 도명 대종사

**11월 19일, 제80차 원로회의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원산 도명 대종사〈사진〉가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제80차 회의를 열고 원산 도명 대종사를 신임 원로의원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22명의 원로의원 가운데 15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개회사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 스님들이 종단을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이끌어 주고 있어 원로의원 스님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는 원로의원 선출 단일 안건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37대 집행부를 갈무리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해 온 종단 발전의 주요 사업들을 원만히 회향하고, 그 결실이 사부대중 모두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종단이 바른 도량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불법홍포와 사회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산 스님은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사미계를, 196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와 조계종 교육원장, 제8교구본사 직지사·제15교구본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다. 2021년 10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여수령 기자

# 본사주지협, 청사 복구 등 현안 논의

**11월 18일, 신흥사서 85차 회의**
**내년 1월 동화사서 회장단 선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 고운사 주지)가 11월 18일 제3교구본사 신흥사 설법전에서 제85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청사 복구 등 현안을 논의했다.〈사진〉

회의에는 회장 등운 스님을 비롯한 전체 26명 중 23명의 본사 주지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 이병선 속초시장, 김시성 제3교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 보고에 따르면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은 9월까지 피해시설 철거와 설계,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현재 12월 재입주를 목표로 인테리어 시공 중이다. 국제회의장 복구는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1층 로비는 기념관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전통과 현대적 이미지의 조화'를 위해 기존 서산마애여래삼존불을 수덕사로 이운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LED 파사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불교지도자 국민화합기원 송년만찬'은 12월 12일 오후 6시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호텔 1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스님, 종회 의장단, 교구본사 주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단 및 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전통사찰 보존지 지목 일원화 입법 추진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조계종·국립공원 캐릭터(굿즈) 상품 판매 △산불피해 예방 및 사찰림 복구 △전통사찰 경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도 논의했다.

한편 회장 등운 스님의 임기 만료로 인한 차기 회장단 선출은 내년 1월 중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 관행 깨고 치열해진 중앙종회…"역할·직무 다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종헌개정 부결**
**"신뢰 · 도덕성 문제…반복 안 돼"**
**정법회 · 선우회 적극 의견 개진**

조계종 중앙종회 제236회 정기회는 15일 회기 중 단 3일만 개회해 입법·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지만,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치열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며 종회의 변화된 흐름을 드러냈다. 정법회와 선우회 등 새롭게 출범한 종책모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종회 내 긴장감을 한층 높였다. 다만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단 한 표 차로 부결되면서 책임 있는 표결과 신뢰 문제를 둘러싼 아쉬움도 남겼다.

정기회는 초반부터 변수가 이어졌다. 최대 종책모임 불교광장이 당론으로 정했던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종헌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둘러싼 격론도 이어졌다.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11월 7일과 10일에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이번 정기회에 대해 "종회가 두 차례 유회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종회의원들이 끝까지 역할과 직무를 다해 줬다"고 평가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회기 마지막 날(11월 19일)로 집중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정기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종헌 개정안은 이번 정기회에서도 5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3표, 반대 22표로 가결 정족수에 단 한 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에 항의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본회의장을 이석하며 종회 불참을 선언했으나, 정기회 마지막 날 회의에 참석해 "종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경 스님은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스님은 "법안에 동의해 놓고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런 신뢰와 도덕성의 문제는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은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는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 내년 3월 임시회에서는 법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법회와 선우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종회 내 논의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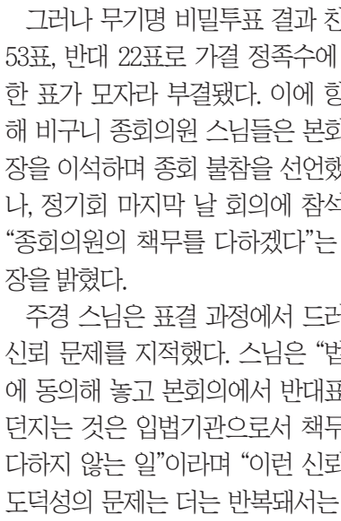
정법회 소속 대진 스님은 "관행에 머무르면 조직이 발전하기 어렵다"며 "정법회는 중앙종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종도들의 다양성이 고르게 반영되는 종회를 만들도록 남은 임기 동안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한·중 달마연구회 창립 기념
제1회 한국 달마축제
달마 선행승 선발 · 달마그리기 · 수계법회

선종(禪宗)의 초조(初祖) 달마(達磨)대사의 선(禪) 수행의 심법(心法)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중국 달마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구 할 목적으로 한국 달마연구회 창립기념 제1회 달마도 작품 전시회 및 달마 선행승(禪行僧) 선발대회.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금강계단에서 품계와 보살수계식도 봉행!

**참가대상**은 전국 사부대중



- 일시 : **불기 2569(2025)년 11월 30일(일)**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원주 미륵산 용화사**(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27)
  - 1부 : 달마 선행승 선발대회 - 2부 : 품계와 보살수계식
  - ※ 작품 전시 및 달마 그리기 대회는 행사 당일 종료시 까지
- 참가요령 ① 달마작품 공모 - 입상 1점, 좌상 1점(작가는 당일 작품 판매가능)
  ② 달마상 선발대회 - 참가자는 선풍 달마의 풍모와 수행 행상(行像)
  ③ 보살수계식 - 직접 또는 참가 사찰별로 단체접수
- 참가신청마감 및 내용 : 참가응모 마감 11월 25일까지
  - 작품응모 : 참가비 없음 - 수계비용 : 5만원(만의 제공)
- 달마 연구회 회원 모집 : (국내외 달마 연구활동, 소림사 달마 연구회와 교류)

주 최 :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본찰, 대한불교 달마연구회
주 관 : 중국숭산 소림사 한국본찰 미륵산 용화사(원주), 세계불교 승왕청, (사)한국불교종단 총 연합진흥회 cbc108.tv연합불교방송, 칠불회, (사)세계평화연합법인회, (사)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참여단체 : (사)한국민속예술연구원,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월간禪으로가는길, 각 종단외 12단체
후 원 : ㈜드림월드개발, ㈜동해식품, ㈜블로만
문의전화 : 010-4813-6800 혜광스님

소림선종 종도 원주 용화사(본찰) 상주 무량사 돈오, 포항 관은사 혜담, 정읍 은곡사 은곡, 청도 도선사 도선, 여주 성덕사 법성, 청주 사무사 월암, 창녕 불보사 법붕, 대구 금천사 소운, 담양 승지암 용현, 세종 봉명사 법지, 장수 도광암 혜원, 창원 불해사 제봉, 울산 희망사 자운, 원주 보림사 혜일, 울산 홍련암 월봉, 음성 무애사 경천, 태백 용연사 덕원, 포항 등대사 해승, 경주 천룡사 지성, 포항 관음사 혜암, 포항 연화사 일붕, 영천 육화사 무통, 칠곡 광명사 성덕, 경주 석가사 혜일, 고령 무유사 금봉, 금산 도명사 해일, 남해 호암사 법장, 밀양 혜왕사 도암, 정선 청룡사 청호, 영월 법흥사 법정, 울산 약명암 법일, 정읍 미타사 경오, 포항 우현사 자인, 창원 백운사 일초, 포항 화엄사 해정, 여수 용천사 선덕, 포항 용천사 원혜, 포항 용국사 원혜, 담양 동자암 보리, 속초 화봉암 원행, 양SS양 천궁암 태경, 부산 덕원사 종묘, 대구 홍익사 청명, 고양 인수암 성해, 서울 강북 인수암 용담, 부산 반야정사 지우, 서울 중랑 법륜사 관연, 대구 은덕선원 덕윤, 청주 용화정사 현공, 서울 은평 열린선원 현수



불교계 최고 통일 禮敬儀式集
의식법요집



〈불교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행〉

『통용불공법요집』『다비법요집』『천도법요집』은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불교의식집이다.

그동안 선지식들이 남긴 뛰어난 불교의식집이 많았으나, 시대 변화 속에서 일부가 단순화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다.

의식법요집은 사찰의 현실적 어려움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전통 의식을 재정리해 신도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책이다.

다비법요집 (1,445쪽) 150,000원 | 천도법요집(853쪽) 100,000원 |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100,000원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보급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교종 TEL : 031-291-8414 H·P : 010-8653-3216

# 조계종 "산재 없는 세상 발원" 추모 위령재

글=임은호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는 매년 2000명. 올해도 상반기에만 1120명, 하루 여섯 명 꼴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누군가의 가족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귀한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위령재에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겼다.

위령재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노동현장 사망 노동자를 비롯해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천도의식으로 진행됐다. 영단에는 94명의 국내 노동자와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등에서 온 50명의 이주노동자 등 140여 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이날 위령재는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동시에 조계종이 국민의 편에 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천도법문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부처님 자비 아래 무거운 슬픔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도 다짐하며 "조계종은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지키는 종단으로서 산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자비의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의 추모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계의 목탁'이라고 했다.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



조계종이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140여 명의 희생자 위패 앞에 헌화하며 안전한 일터를 염원했다.

**11월 18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 봉행**
**이주노동자 등 140여 명 위패 모셔**
**김민석 국무총리·30여 유가족 동참**
**진우 스님 "생명 앞선 이윤 없어"**
**"약자에 자비 시선 놓지 않겠다"**

고 강조한 스님은 "한 사람의 노동이 누군가의 밥이 되고, 안전이 되고, 일상이 된다. 생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위령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를 약속하고 노동자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며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 양측의 참여를 통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희생 영가들의 넋을 달래는 어산종장 동환 스님의 절절한 '화청염불'이 울려퍼지는 동안 영정 앞에 선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고 강태완 씨의 어머니 앵크 자르칼 씨는 유족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국내·이주노동자, 과로와 작업 중 얻은 질환으로 사망한 영혼들이 사고 없고 안전하고 가족과 이별 없이 위험의 외주, 이주가 사라진 세상인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게 해 달라고 염원했다.

이날 위령재는 희생자들의 위패와 종이 옷을 불로 태워 영혼을 보내는 소전 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위령재에 앞서 진우 스님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에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위령재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도 크다"면서 "먼저 가신 분들은 극락왕생을 해야 하고 남아 있는 분들은 빨리 치유가 돼 먼저 가신 분들의 인생까지 잘 갈무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토끼몰이식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희생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부 뚜안 씨의 사연을 듣고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요청할 뜻을 밝혔다. 부 뚜안 씨는 계명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하려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숨어 있다가 탈진해 추락사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법무부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이를 위해서 단속 업무를 법무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마련된 유가족 면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하다 희생을 당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통감했다. 진우 스님이 "정부에서 세심히 살펴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자 김 총리는 "일을 하다 희생된 것은 나라가 할 도리를 다 못해 그런 것이므로 국가 책임"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것도 참 아픈데, 이런 일을 없애고 해결하기 위해 유가족이 모인 것은 큰 결심이었을 것"이라면서 "노동부 장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교계에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총리는 "산재 문제에 대해 위령재 등 불교계가 앞장서 관심을 가져 주니 감사하다"면서 "정부도 함께 하나하나 풀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한을 김 총리에게 전달하며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무겁게 받아들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에게 전달된 서한에는 총리 면담 요청,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및 이주정책 전환 요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령재에서 극락왕생을 바라는 천도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과 담마끼띠 스님이 위패를 들고 소전의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위령재에 앞서 진우 스님은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한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 동화사 주지에 선광 스님 "변화 시발점"

**11월 19일, 임명장 수여**
**"대구·경북불교 발전 견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왼쪽)이 11월 19일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림 해제' 사태로 혼란을 겪어 온 동화사의 신임 주지에 선광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지난 14일 산중총회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후보에 선출된 선광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동화사는 그간 지난한 난관이 많았으나, 선광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아 전법 포교의 모범이 되고 선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은 "종도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며 정진하겠다. 대구·경북 불교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임명장 수여식 후 선광 스님은 "앞으로 동화사가 여법한 수행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구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수행복지기금 마련 등을 통해 스님들이 마음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원칙을 지키되 대중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동화사가 새롭게 변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은 현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 조계사에서 수계했다. 16·17대 중앙종회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조계사 총무국장, 동화사 총무국장, 호압사·안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중앙종회 역사왜곡·종교편향특별위원장,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여수령 기자

# 조계종 승가교육위원장에 금강 스님

**11월 17일, 첫 회의서 만장일치로**
**진우 스님, 위원 9명 위촉장 수여**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사진)이 조계종 3원 통합 후 재발족한 승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됐다. 승가교육위원회는 △승가교육 계획 수립 및 개편 △교재 개발 및 역경 등 조계종단의 교육관련 주요 사항을 연구·기획하는 기구다.

11월 17일 새롭게 위촉된 조계종 승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전법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금강 스님을 만장일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금강 스님은 "총무원, 종회 등과 서로 소통해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장 선출에 이어 위원회 운영의 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특히 △출가자 △교육기관 △사찰승가대학·대학원 학인 및 상주교수 △고시 등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 검토 후 교육과정 개편과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 검토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신규 승가교육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승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교육부장 유정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 고운사 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 통도사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송광사승가대학장 연각 스님, 수계교육 운영위원 지성 스님, 동학사 승가대학장 명오 스님이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11월 16일까지 2년이다.

임은호 기자


圓 寂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金山堂 道永大宗師 元老會議葬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金山堂 道永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2569(2025)年 11月 20日(陰 10月 1日) 午前 05時 20分에 法臘 65年, 歲壽 84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一同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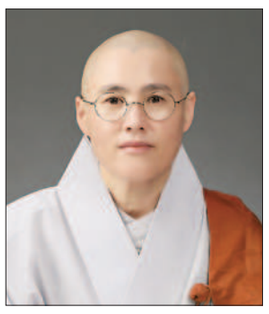
■ **焚香所** :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永訣日時** : 佛紀2569(2025)年 11月 24日(陰 10月 5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茶毘場** : 母岳山 金山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母岳山 金山寺 (063)548-4441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金山堂 道永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 27회 불교복지대회…경륜·정관 스님 공로 인정

**12월 3일 오후 2시, 동국대 남산홀**
**경륜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정관 스님 국회의장 공로장 선정**
**창립 30주년 성과 결산·비전 제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경륜 스님


정관 스님

불교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자비나눔을 실천해 온 실천가들을 시상하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경륜 스님이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 부문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게 됐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재단)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제2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회는 재단 창립 30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난 성과를 결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불교사회복지 비전 제시의 장이 될 전망이다.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사무처장 덕운 스님을 비롯한 교계 주요 인사와 정관계 인사, 전국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재단 대표이사 표창을 포함해 장관 표창·국회의장 공로장 등 총 30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부문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는 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경륜 스님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유보통합을 계획·실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상북도 K보듬 6000' 사업을 통해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필요에 따라 주말 공휴일에도 영유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썼다. 선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불교 내에서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다.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22년간 효문화 실천을 위해 어르신들 곁을 지키며 복지실현에 앞장서 왔다. 실천 현장 개선 및 발전, 노인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적극적 아젠다 형성, 사회복지 후학 양성, 선진 복지환경 전파 및 확산 등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부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 및 노인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불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사회복지현장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안양규 동국대 불교상담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서울노인복지센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 명상심리학과 교수, 이해청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 이지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02-723-5102




## 연화원 "장애 넘어 하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발원하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이 11월 1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제22회 수어사랑 음악회 및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음악회에서는 해성 스님이 마하무용단·마하연모회와 함께 무대에 올라 신명 나는 난타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음악회에 앞서 장애인 단체에 자비의쌀 3000kg을 전달했으며 장애인 부모의 자녀와 장애인 학생 5명에게 장학금도 지원했다. 또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에 〈점자 불교성전〉 제7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임은호 기자

# 전국 곳곳서 이어진 김장 김치 자비나눔

**여성불자회, 2000kg 보시행**
**분당 대광사엔 다문화 봉사도**
**진안 쌍봉사 150가구에 전달**


분당 대광사가 11월 15일 지역사회와 함께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민 500여 명이 참가해 김장을 담가 800여 세대에 전달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국 사찰과 단체들에서 불자들이 한데 모여 김장을 하고, 이웃에 나누며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2025 제2회 김장은 축제다'를 개최했다.

이날 100여 명의 동참자들은 절임배추 총 2000kg의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특히 이번 김장 축제에는 자립준비청년 10명도 함께하며 본인뿐 아니라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담근 김치 2000kg 중 1300kg은 자립준비 청년 및 미혼모 가정과 청소년 쉼터 등 서울지역 10개 시설로 전달됐다.

**분당 대광사**(주지 경혜 스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겨울 나눔 행사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을 11월 15일 대광사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500여 명이 참여한 올해 행사에는 특히 다문화 가정·외국인 참가들도 함께해 행사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날 김장김치는 지역 800여 세대에 전달됐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1월 15일 반찬봉사단(회장 김진옥)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담근 김치 150통(약 1500kg)을 진안 대광마을회관을 비롯한 지역 경로당과 장애인 단체, 매월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80세 이상 어르신 등 총 150가구에 전달했다. 김치를 전달받은 어르신은 "요즘 김장하기 어려운데 직접 만든 맛있는 김치를 집까지 가져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장 장석희)는 11월 9일 정읍시 감곡면 한 김치공장에서 진행된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서 1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불교계 복지시설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등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 임은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 "탄자니아 해외봉사단원 찾습니다"

**아름다운동행, 12월 3일 접수**
**보리수센터 아이들에 예능교육**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서 활동할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아름다운동행은 국제개별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협력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향하는 '2026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KOICA-NGO봉사단' 단원을 12월 3일까지 모집한다. 파견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원격 1개월+현장 11개월)까지로 1년간이다.

아름다운동행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해외봉사단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보리수아동센터 및 인근 초등학교 3곳에서 예체능 수업과 행정 업무를 맡게 된다. 아름다운동행에서 지원하고 건립한 보리수아동센터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학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배움의 터전이다. 2024년 완공돼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아름다운동행이 꾸준히 이어 온 탄자니아 아동 지원 사업 '토토의 꿈'을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은 미술·체육·음악 등 창의 중심의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 지역 아동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해외봉사단원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부족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채용 시 중시하는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면서 "국제현장에서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http://dreaminus.org) 참조. 02-737-9553

임은호 기자

# 비구니硏 '근대 격랑 속 비구니 승가' 세미나

**11월 27일 오후 1시, 비구니회관**
**탁효정·홍경 스님·조은수 등 발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 스님)가 1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2025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근대 격랑 속의 한국비구니 승가-일제강점기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실천·저항'을 주제로 한다. 일제강점기라는 격랑 속 한국 비구니승가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는 그들의 자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미나에서는 △불화 화기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비구니의 분포와 활동-니승 인명 DB 분석을 중심으로(탁효정) △일제강점기 한국비구니의 선수행(禪修行) 문화와 선맥 전승(홍경 스님) △일제강점기 비구니들의 시대인식과 독립운동(전영숙) △불교와 근대, 여성의 재발견(조은수) 등이 발제된다. 종합토론에는 하춘생 교수와 효석 스님이 참여한다. 02-3411-8103 임은호 기자

# 중장급 인사…20명 중 불자 9명

**11월 13일 단행 장성 인사서**
**육군 7명 해 · 공군 각 1명 등**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11월 13일 단행된 정부의 중장급 장성 인사에서 불자 장성 9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 군 주요 지휘관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의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보직했다. 이 가운데 불자 장성은 육군 7명, 해·공군 각 1명 등 총 9명이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평소 올곧은 마음가짐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 온 불자 장성들의 진급은 불자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 주는 동시에 그동안 꾸준히 이어 온 군 포교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자 장성들이 국방과 안보의 최전선에서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더욱 빛내 주길 바란다"면서 "군종특별교구는 불자 장성들이 호국 불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 일곱 법고 만든 공명…의식 넘어 예술로

**11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김혜진 기획자 "전통을 현대로"**
**다양한 종단 스님 한 무대 '눈길'**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던 '법고(法鼓)'가 공연 예술로 재구성돼 무대에 오른다. 오는 11월 3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다양한 종단 소속 스님 7명이 출연하는 법고 합주 공연 '법음-일곱 법고, 세상으로 나오다'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북의 울림으로 빚는 선명상'을 주제로 법고의 진동을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공연을 기획·연출한 김혜진 전통국악예술교육협회 대표는 "법고는 단순한 타악기가 아니라 수행의 호흡이자 기도"라며 "이번 무대는 전통을 현대 공연 예술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대표는 30년 가까이 전통북과 국악 교육, 공연 기획에 전념해 온 인물이다. 17살, 울진 용궁사에서 처음 법고 연주를 접했을 때 "북의 소리가 마치 수행자의 호흡과 같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김 대표는 이후 스님들의 법고 수련 과정을 꾸준히 관찰하며 예술적 재해석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합주를 넘어 관객이 '울림 속'으로 들어오는 명상 체험형 무대다. 7대의 법고가 무대 위 원형 구조로 배치되고, 스님들은 각 법고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호흡과 리듬을 이어 간다. 북의 진동은 무대 바닥과 객석으로 확산되며, 공간 전체가 하나의 공명체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북은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인간의 심장 박동과 가장 가까운 악기라며 법고를 통해 관객이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 게 김혜진 대표의 설명이다.

법고는 사찰 의식에서 사용되는 의식구로, 여러 명의 스님이 동시에 연주하는 형식은 흔치 않다. 때문에 이번 법고 합주 공연은 그 자체로도 드문 시도다. 전통적 의식 도구를 무대 예술로 확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나 각기 다른 종단의 스님들이 한 무대에 선다는 것 또한 흔치 않은 일이기에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구산·현광·상도·지안·문수·공림 스님, 태고종 도인 스님, 법화종 혜명 스님, 삼론종 근혜 스님 등이 이번 공연의 주인공들이다.

이번 공연이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구산 스님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 구산 스님은 공연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언과 실질적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에서 법고·가야금·노래·태극권 등 다양한 수행 예술을 접목한 활동을 이어 온 구산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도 7명의 스님이 하나의 호흡으로 공명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산 스님은 "이번 공연이 전통 의례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에게 친숙하게 전달되는 새로운 포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법고'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 스님들과 기획자 김혜진 대표. 사진 제공=김혜진 대표

# 인구 감소·탈종교 시대, 한국불교 미래를 묻다

## 종단협, 11월 18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서

### 조계종·천태종·진각종·태고종 각 종단 포교 전략 등 공유
### "대중과 가까이" 변화 공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출산율 급감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고 탈종교화 흐름이 일상이 됐다. 한국불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범불교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각 종단은 포교 현황과 전략,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다. 상생의 불교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8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강당에서 '종교 인구 감소시대, 불교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불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계종·천태종·진각종·태고종의 포교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 종단의 포교 정책과 신행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차석부회장 능원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오늘 발표될 내용은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전하고 모두가 함께 걷는 '포교의 길'을 넓히는 일"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각 종단의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포교 방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종단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한다면 한국불교의 내일은 분명 더욱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원장)은 "종교 인구 변화와 종교 환경의 재편 속에 각 종단이 함께 길을 열어 가는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한국불교가 미래세대에게 신뢰 받는 종교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불교 이미지 제고와 대중화 전략

첫 발제에서 조계종 사서실장 남전 스님은 '종교 인구 감소에 따른 전법 포교 방안'을 주제로 불교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을 짚고, 이미지 제고를 통한 불교 대중화 전략을 고찰했다.

남전 스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의례 중심의 산중 종교로 인식해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낯설어 한다"며 "깨달음에 대한 피상적 답변, 한문 중심의 어려운 용어 등도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연령·성별·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교 △출·재가 간 쌍방향 소통 △실용적 신행 콘텐츠 개발 △명확한 교리 전달 및 이미지 제고를 제시했다. 5분 선명상 운동, 문화포교 콘텐츠 확산, 경전·기도의식 한글화, 양력 법회 등 현대인의 생활 주기에 맞춘 실천 포교 전략도 안내했다.

특히 남전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포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연등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 종단협 차원에서 협의 기구를 구성해 불교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적 관심과 시민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전 스님은 "불교는 현대사회의 가치체계 중 세속적 이해를 초월하는 특성과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본래의 기능이 있다"며 "위기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종교, 궁극적으로 점점 나아지는 사람, 행복으로 이끄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 신도회가 사찰 운영 주체로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불법홍포의 기반과 전개'를 주제로 발표한 천태종립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은 인구 감소 시대에도 천태종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요인을 소개했다.

스님은 "천태종은 삼대지표인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에 기반해 사부대중이 포교의 주체로 함께 종단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157개 사찰 모두 공찰 체제로, 총본산 구인사는 연중 개방돼 입교 교육과 기도 수행이 이뤄지고, 지역 말사는 매월 정기법회를 통해 신행·포교의 장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도회는 사찰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재산 관리·포교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광도 스님은 "공찰 체제는 신도들에게 '우리 사찰'이라는 책임감을 심어 주며, 신도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어 불법홍포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태종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대승보살 4섭법(보시섭·애어섭·이행섭·동사섭)으로 중생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광도 스님은 "천태종도 모두가 보살이 돼 4섭법으로 중생을 포섭하고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해 자신과 모두가 성불, 지상불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을 널리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문화·복지·디지털 포교 확대

진각종립 위덕대 전법원장 성제 정사는 '종교 인구 감소와 청년 포교 과제'를 주제로 진각종의 독창적 교리체계와 과제를 분석했다. 진각종은 밀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출가 승려 중심에서 벗어나 재가 교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점이 뚜렷한 특색이다.

진각종은 그간 교육·지역·문화·복지·국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대 사회와 접점을 넓혀 왔다. 그럼에도 성제 정사는 "도시화와 생활 패턴 변화로 사찰 중심 구조는 더 이상 사회적 효력이 크지 않다"며 청소년·청년 세대 유인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꼬집었다. 정기적인 사찰 방문의 어려움, 사찰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폐쇄적 운영 구조 등도 포교 확장의 걸림돌로 꼽았다.

성제 정사는 "기존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젊은 세대 이탈을 막을 수 없으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시도와 교화자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교육과 가정의 연계 △젊은 세대 생활 리듬에 맞춘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개발 △사회참여 확대를 향후 과제로 짚었다.

종립 위덕대와 진선여중·고, 심인중·고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불교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심인당·비로자나청소년협회·진각복지재단의 활동을 통해 '참여하는 불교'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포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 사업도 확장, 젊은 세대와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성제 정사는 "향후 진각종의 포교는 교육·문화·복지·디지털을 중심축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불교의 미래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마음을 닦고 세상을 밝히는 진각종의 길을 더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법사' 확장으로 인적 자산 축적

동방불교대 교학처장 철오 스님은 태고종의 승가 호지 방안으로 전법사 제도 확장을 제시했다. 태고종은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와 함께 남·여 전법사를 두고 육부대중 체계를 갖춘 유일한 종단이다.

철오 스님에 따르면 태고종의 출가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법사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태고종은 2010년 연평균 150여 명의 출가자를 배출했지만 2020년대 들어 현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대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태고종 출가자와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배출된 정식 승려는 연평균 약 50여 명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전법사는 2020년 44명, 2021년 55명, 2022년 45명, 2023년 52명, 2024년 68명이 배출됐다. 연도별로 등락이 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태다.

철오 스님은 "'생활 속 불교 성직자'를 핵심 메시지로 전략적 홍보 방향을 정하고 기혼, 가족불자, 사회 전문층을 대상으로 전법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맛보기 체험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법사가 직접 운영하는 멘토링 사찰을 지정해 지역 커뮤니티를 잇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법사 출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다.

또 도심 소규모 법당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포교도 효과적이다. 태고종 교육원은 불교명상지도사 과정을 개설해 명상·마음챙김·요가 등 치유 기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태고종은 지속적인 지도자 양성으로 마음챙김, 요가, 명상 등 심신 수련 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철오 스님은 "태고종의 포교는 질적 내실화와 지속적인 인적 자산 축적, 현대사회와의 소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종단에서 배출한 전법사를 시민선명상센터나 영산재 문화프로그램에 배치해 활동하게 한다면 교육-인력-콘텐츠가 연결된 순환적 포교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18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강당에서 '종교 인구 감소시대, 불교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불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 종단의 포교 정책과 신행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



조계종 사서실장 남전 스님.



천태종립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



진각종립 위덕대 전법원장 성제 정사.



동방불교대 교학처장 철오 스님.


인도 문화탐방 9일
인도의 주요 관광지만 가는 일정입니다.
출발일 : 2월11일~2월19일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인도 최고의 조각상)-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0만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1월23일 출발~2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2월20일 출발~3월01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출발일 : 1월14일~21일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79만원

남미여행 5개국 18일
페루 마추픽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칠레 토레스델파이네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빙하, 브라질 이과수폭포,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 관광지
출발일 : 3월20일~4월06일
▶ 동참금 : 1690만원(11월30일까지 신청시 이후는 1790만원)

동유럽 5개국 11일
동유럽 5개국 헝가리-크로아티아(드브로브니크 포함)-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멋진 코스입니다.
출발일 : 6월01일~6월11일
▶ 동참금 : 549만원

이탈리아의 알프스 돌로미테 여행 10일
돌로미테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7월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환상적인 여행 일정입니다.
출발일 : 7월09일~7월17일
▶ 동참금 : 749만원

남프랑스 힐링여행 12일
니스-모나코-액상프로방스-아비뇽-아를-카르카손 등
아름다운 남프랑스만 여행하는 최상의 힐링여행
출발일 : 4월30일~5월11일
▶ 동참금 : 790만원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출발일 : 6월16일~7월01일
▶ 동참금 : 570만원

# AI 불교 명상 어디까지 허용될까?

**한국불교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
**1월 15일, 동국대 WISE캠퍼스서**
**'AI시대 선명상과 교류분석' 주제**
**보일 스님 "윤리 기준 마련 시급"**
**박희승 "선명상, 스트레스 치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한국불교상담학회가 개최한 제23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일 스님이 'AI시대의 불교 명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명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 수행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불교상담학회(학회장 안양규)는 11월 15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501호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상담: AI시대의 선명상과 교류분석'을 주제로 제23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명상의 본질을 지키는 방안과 불교상담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시대의 불교 명상'을 주제로 발표한 보일 스님(AI부디즘연구소장)은 "AI가 인간의 감정과 뇌 반응을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며 "기술이 명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시대에는 수행의 주체성과 전통적 의미를 지키기 위한 불교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스마트폰 연동 뇌파 측정기, 감정 집중도 분석 프로그램, 수면 불안 관리 앱 등 이미 대중이 사용하는 AI 기반 명상 기술을 소개하며 변화의 속도를 짚었다.

과거 전문 장비에서만 가능했던 미세 신호 분석이 일반 기기로 가능해지면서 "명상 상태 자체가 기술에 해석되고 개입되는 흐름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해 음악, 진동, 시각 효과로 되돌려 주는 자동 명상 시스템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스님은 "집중이 흔들릴 때 기술이 즉각 개입하는 구조에서는 수행의 주도권이 기술로 넘어갈 수 있다"며 "명상이 '자기 성찰'이 아니라 '기계의 안내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VR 기반 가상 선방, 로봇 명상 안내 프로그램 등 새로운 수행 환경의 확대도 "접근성은 높지만 전통 명상과의 경계 설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윤리 문제 역시 비중 있게 제기됐다. 스님은 유네스코의 '신경기술 윤리지침'을 언급하며 감정, 주의집중, 불안 상태 등 '내면 정보(Neuro-data)'가 수집되기 쉬운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종교 윤리가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일 스님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내면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며 수행 공동체가 더욱 민감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AI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자 도반, 때로는 파트너로 이해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며 "AI와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에는 인간의 주체성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어쩌면 '신인간적 존재(New Human)'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 두 번째 발표는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장 선명상 특별보좌관이 맡아 '조계종 선명상의 대중화와 실천'을 주제로 명상의 일상화 흐름과 종단의 정책적 방향을 설명했다.

박희승 보좌관은 선명상이 "지식과 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도 줄지 않는 인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간화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계종이 간화선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명상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간화선으로 이어지도록 길을 넓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허만세 교수(계명대)가 '교류분석(TA) 성격적응이론을 통한 불교의 삼독 해석'을 통해 상담 현장에 불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안양규 학회장과 윤종갑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각 발표에는 지원 스님(부산대), 정귀연 교수(동국대), 김지명 교수(동국대)가 논평자로 참여해 발표 주제를 심층적으로 확장했다.

# 차문화 지평 넓힌 '제12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향기로운문화동행, 11월 16일**
**'차 통한 세계와 문화 교류'**


제12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에서는 지역 차문화 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에 힘써 온 인물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제12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가 지역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고, 차인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장으로 열렸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 스님)은 11월 16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제12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주제는 '차를 통한 세계와의 문화 교류'로, 허황옥을 기리는 헌향, 헌화, 헌다, 헌시, 헌무가 개막 의례로 펼쳐져 한국 차문화의 뿌리와 역사적 맥락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이날 축제에는 정오 스님(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도명 스님(밀양 여여정사 주지), 박형준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계춘 신부, 정종복 기장군수 등 지역 불교계와 정치 및 교육,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차문화 단체 관계자와 지역 차인, 시민들도 함께해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시상식에서는 박유순 신라차문화원장이 허황옥차인대상을, 성림 스님(부산영산재보존회 이사장)이 김수로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부산시장, 교육감, 시의회, 기장군수 표창과 국회의원 표창 등으로 지역 차문화 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에 힘써 온 인물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보혜 스님은 "소리 없이 헌신해 온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번 축제가 큰 격려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12회까지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주신 많은 분의 인연 덕분이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오 스님은 격려사에서 "차 한 잔의 고요함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잃어 버린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며 "차문화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실천불교승가회, 정산 스님 상임대표 추대

**11월 14일, 제24차 정기총회**



실천불교승가회가 11월 14일 실천승가회 사무실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산 스님(부산 황련사 주지·사진)을 새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정산 스님은 승가회의 출범 과정과 함께해 온 오랜 인연을 전하며 책임감을 드러냈다. 스님은 "민불련 활동을 시작으로 큰스님을 모시며 정토구현승가회와 실천불교승가회를 만들고, 어느덧 40년이 흘렀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승가회가 가야 할 방향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1980년 10·27법난을 직접 목도한 후 교단 민주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민불련·정토구현승가회·실천불교승가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황련산 케이블카 개발 반대운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사업 등 지역 내 사회참여 실천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실천불교승가회는 정기총회에서 임원단도 재정비했다. 상임고문에는 지선·청화·성관 스님, 명예대표에는 법안·시공·원경 스님이 위촉됐다. 기존 명예대표였던 퇴휴·일문 스님은 "직함이 활동에 무거운 면이 있다"며 '지도위원'으로 직함을 변경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사)부산정각원, '제14회 연말 자비나눔'

**김장김치 및 장학금 등 전달**




창립 3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불교계 자비 실천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정각원은 11월 19일 사상 르네시떼 야외공연장에서 '제14회 연말 자비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정각원은 이날 사상구 취약계층 1500여 명에게 김장김치와 라면 등 겨울나기 식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김장김치 300박스(박스당 10kg)와 라면 300박스(박스당 20개)는 사상구 12개 동에 전달됐고, 사상구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학생 13명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는 육개장 1500인분이 무료 제공됐다.

향공 스님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조계종부산聯, 저소득 어르신에 난방비

**40세대에 1000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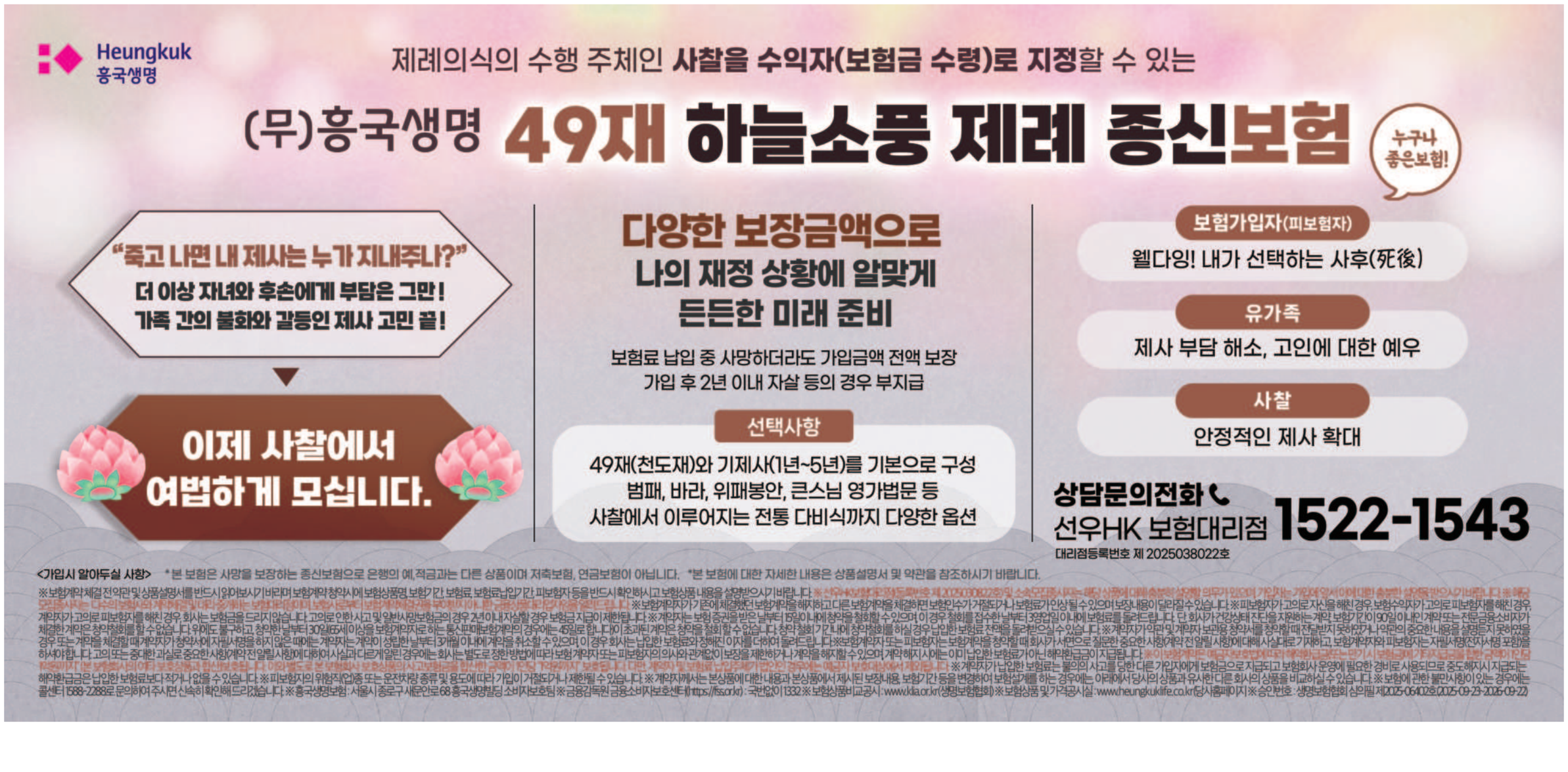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 연탄불공회가 11월 19일 해운대 대광명사에서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연탄불공회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지원을 통해 부산 지역 저소득 노인가구 40세대에 총 1000만원의 난방유가 전달됐다.

연탄불공회는 2017년 범어사 무비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나눔 사업으로, 초기 연탄 후원에서 현재는 난방유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목종 스님은 "지혜와 공덕은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오늘의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금산사 압수수색에 호남 불자들 강력 규탄

## 금산사 신도회, 11월 17일 전북경찰청 항의 방문

**"종교 성역 공권력 침탈" 반발**
**전북경찰청에 책임자 처벌 요구**
**"전주KBS 중계탑 철거운동 전개"**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난 11월 7일 경찰이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호남 지역 불자들의 분노가 거세다.

금산사 신도회(회장 한광수)를 비롯한 신도신행단체 불자들은 11월 17일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금산사 신도회 등 38개 신도신행단체는 전북경찰청 정문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산사와 은적사 압수수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산사와 은적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임의제출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예고 없이 종교 공간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행과 기도의 공간에 대한 불법적 수색은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아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권력의 강제적 행사는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북경찰청장의 사과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단체들은 "공권력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번 사건은 10·27 법난을 떠올리게 하는 무단 침탈"이라며 "피의사실을 사전 공개하고 언론을 동행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KBS의 보도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한 일방적 보도"라고 규정하고 "전북 지역 10만 불자들은 연대해 수신료 거부운동과 모악산 KBS중계탑 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금산사 신도회를 비롯한 신도신행단체 불자들이 11월 17일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석한 한 불자는 "수행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금산사가 수사대상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절차와 종교 공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항의 방문에는 금산사 신도회,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등 38개 신행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향후 대규모 탄원운동과 촛불법회 등 대응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 청년들 '캠프+템플스테이'에 빠지다

**지리산 화엄사, 첫 캠플스테이**
**11월 15~16일 순천대 등 참여**
**12월 말까지 총 4회 운영 예정**

지리산 화엄사가 20대 청년들을 위해 캠핑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화엄원에서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캠플스테이 – 하신화심(下身華心)'을 진행했다. '캠플스테이'는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캠핑'과 사찰 체험을 결합한 신개념 템플스테이로, 화엄사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1회차에는 호남대와 순천대 불교동아리 학생 30명이 참여해 화엄원 마당에 직접 텐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처음 텐트를 쳐 보는 학생도 많았지만 서로 도우며 금세 30동의 텐트촌이 완성됐다.

한미소 호남대 불교학생회장은 "처음 텐트를 쳐 봤는데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니 너무 재미있었고 색달랐다"며 "오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캠핑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캠플스테이' 첫 행사를 11월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했다.

저녁 공양과 예불을 마친 뒤에는 화로 앞에서 떡과 고구마, 마시멜로를 구우며 힐링 시간을 가졌다. 떡이 타거나 고구마가 설익기도 했지만 "핫초코 한 잔이면 다 해결된다"며 학생들은 실패마저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었다.

주지 우석 스님은 "캠플스테이는 몸을 낮추고 불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며 "오늘은 불교 공부보다 고구마 한 입, 떡 한 입이 여러분에게 더 귀중한 수행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이어 "요즘 청년들이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곳에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바람과 흙, 불빛을 있는 그대로 느껴 보길 바란다"며 "자연을 받아들이는 힘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 준다. 사찰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러 쉬어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보국장 범정 스님은 "이번 캠플스테이는 주지 우석 스님의 발원으로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라며 "20·30대 청년들이 사찰에 와서 텐트를 치고 머무는 '캠핑의 한 장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량을 열어 놓자는 것이 스님의 첫 취임사에서부터 강조된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청년들은 친구들과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지만, 사찰은 왠지 어렵고 조용해야 한다는 이미지가 크다. 그렇다고 캠핑 분위기와 사찰 이미지가 충돌해서는 안 되기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참고하며 조심스레 준비했다"고 말했다.

화엄사는 12월 말까지 총 4회(회당 1박 2일) 캠플스테이를 운영한다. 2회차는 11월 29일~30일(토·일), 3회차는 12월 5일~6일(금·토), 4회차는 12월 31일~1월 1일(수·목) 진행된다. 각 회차 정원은 30명이며, 20~30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경남불교 독립운동, 오늘에 되새기다

**19일 김해독립운동 연구발표회**
**도명 스님, 범어사 독립운동 조명**




경남지역 불교계의 독립운동사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해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광호)는 11월 19일 김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강당에서 '제3회 김해 독립운동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발표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나선 경남 불교계'를 주제로, 불교계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와 불교계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는 김광호 김해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과 도명 스님(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법장 스님(삼보조계종 총무원장), 이순일 식민사관청산경남연대위원장, 이광희 김해독립운동연구소장, 정영도 경남향토사연구회 김해지회장, 이헌동 김해근대역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명 스님은 '경남지역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제 발제했다. 스님은 제국주의의 충돌 속에서 조선 불교가 마주한 역사적 기로, 일제의 침략과 불교탄압, 범어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호국불교의 전개를 객관적 자료와 문헌을 통해 상세히 제시했다.

특히 범어사 명정학교·지방학림·불교전문강원이 지역 지식인과 청년을 길러 낸 민족교육의 중심지였음을 강조하고, 1919년 범어사 청련암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해 동래장날 만세시위를 이끈 스님과 학생들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토론자인 정영도 경남향토사연구회 김해지 회장은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공감하기 쉽게 정리했다"며 "조선 불교가 항일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 설명이 보완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40대 특집 '나는 절로, 수덕사' 성료

**15~16일 열려, 3커플 매칭**
**1000명 지원에 20명 참가**




'40대 특집'으로 진행된 '나는 절로, 수덕사'가 세 커플을 매칭하고 회향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1월 15~16일 예산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에서 청춘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수덕사'를 개최했다.〈사진〉 40대 특집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사전 신청자 가운데 선발된 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참가해 늦가을 산사에서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입재식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오늘 인연이 내년 이맘때 결실로 이어지길 기도하겠다"고 축원했다. 이어 스님은 커플 탄생을 기원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입재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덕사 재무국장 현중 스님의 안내에 따라 국보인 수덕사 대웅전을 비롯해 사찰 곳곳을 둘러봤다. 이어진 '매력 발산 시간'에는 장기자랑과 자기소개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참가자는 노래를 열창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즉석 10초 드로잉으로 '사랑의 탑'을 그려 웃음을 자아냈다.

남자 7호는 "스님의 추천으로 용기를 내 참가했다"며 "서로 진정성 있게 바라본다면 좋은 인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 9호는 "40대가 된 후 소개 자리가 크게 줄었는데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만큼 깊이 있는 만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저녁 시간 동안 차담, 산사 체험 등을 통해 마음을 열어 갔다. 이튿날 오전 진행된 선택의 시간에는 최종 3커플이 매칭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덕사=유재상 충청지사장

# 보원사지 사역 확인 '고려 최대 승방지'

**11월 19일, 서산 보원사지 설명회**



고려 시대 최대 규모의 승방지로 추정되는 서산 보원사지 발굴 현장이 공개됐다. 서산시는 11월 19일 보원사지에서 제12차 발굴조사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조사에서는 고려 시대 승방지 건물지군 6개소와 담장지 11기, 석축 7기, 배수로 8기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승방지가 최초로 확인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고려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선교승 1000여 명이 머물렀다는 문헌 기록을 뒷받침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보원사 운영위원장 정경 스님은 "승방지로 사찰 운영 범위를 확인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개원 4주년 법회

**11월 15일 대웅전서 봉행**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은 11월 15일 대웅전에서 '개원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회주 덕문 스님, 주지 연성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하며 4주년을 축하했다.

주지 연성 스님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울산 해남사, 8차 금강경 독송 정진 회향

**11월 12일, 441독 정진 회향**



영축총림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주지 혜원 스님)는 11월 12일 '제8차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대법회'를 회향했다.〈사진〉 해남사는 지난 10월 22일 8차 정진대법회에 입재해 21일 동안 매일 〈금강경〉 21독씩 총 441독을 독송하며 수행의 생활화를 실천해 왔다.

주지 혜원 스님은 인사에서 "여덟 번째 〈금강경〉 정진은 도반들의 합심과 원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가야불교문화원, 제12회 산사음악회 성료

**11월 15일 김해 수릉원서**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이사장 혜수 스님)이 주최하고 김해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한 '제12회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산사음악회'가 11월 15일 김해 수릉원 특설무대에서 열렸다.〈사진〉

혜수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환하게 머물길 바란다"며 "오늘 음악회를 통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남원 관음사, 장애인 단체에 자비나눔

**3개 단체에 쌀 · 라면 전달**



여러 해 동안 부침을 겪었던 남원 관음사(주지 법현 스님)가 정상화의 첫 행보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펼쳤다. 남원 관음사는 11월 18일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쌀 1000kg(10kg 100포)과 라면 50박스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물품은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 꿈들에장애인협회, 사회복지법인 햇빛 등 3개 단체에 고루 배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평택 수도사, 문화예술제 성료

**깨달음체험관 8주년 맞아**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11월 15일 해수관음상 앞 특별무대에서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 개관 8주년 기념 원효대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덕운 스님(안성 석남사 주지)과 법현 스님(보국사 주지), 이성호 평택부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적문 스님은 "체험관이 세대를 아우르는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 선운사 본말사 불교유산 면면을 살피다

**불교중앙박물관 · 선운사 공동**
**11월 18일 국립민속박물관서**
**선운사 三지장, 내소사 동종 등**
**본말사 불교유산 가치 되새겨**
**내년 '도솔산 선운산'展 개최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선운사는 11월 18일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선운사 본·말사 불교문화유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회식 후 진행된 기념촬영.

"도솔산 선운사에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제작된 3구의 지장보살 좌상이 봉안돼 있습니다. 이는 선운사가 전통적 지장신앙과 연결되며, 오늘날까지 지장신앙의 성지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와 말사에 소재한 불교문화유산의 가치와 면면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 2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부안 개암사 등이 봉안·소장한 조각, 회화, 공예, 서지, 섬유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문 학자들이 조명했다.

1부인 '선운사의 불교문화유산'에서는 불교조각사 연구의 권위자인 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이 '시대양식을 담은 도솔산 선운사의 삼지장'을 통해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의 가치를 살폈다.

정 관장은 "이 삼지장은 모두 독존상으로 제작됐으며 머리에 두건을 쓴 피건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면서 "한 사찰에 시기를 달리하면서 피건지장상을 독존으로 제작해 모시는 경향은 매우 드물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운사 삼지장은 우리나라 지장상 조성과 지장신앙의 유행을 선도한 독보적 작품으로서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며 "삼지장의 구체적 제작시기 및 봉안처, 여말선초의 지장 관련 기록 그리고 선운사 지장신앙의 성격 및 참법의 의례구조에 대해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선운사 말사의 불교문화유산'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한국 금속공예사 권위자인 최응천 동국대 석좌교수(전 국가유산청장)는 '국보 내소사 동종과 장인 한중서'를 통해 고려 최고 동종인 내소사 동종을 조성한 장인 한중서를 조명했다.

최 석좌교수에 따르면 한중서는 직업인으로서 주금장으로 활동한 사장(私匠)이었지만, 고려사명 '반자' 조성 시기에는 시위군에 소속돼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병역을 하며 한중서는 관장(官匠)으로 자리 잡아 이후 대장(大匠)의 직급을 받고 나중에는 대장동정(大匠同正)까지 올라가게 된다.

'내소사 동종'은 뛰어난 장인이었던 한중서의 역작으로 "어느 한곳 부족함 없이 완벽한 주조 기술은 물론이고 용뉴부터 상·하대의 세부 문양과 종신의 삼존상까지 화려함을 갖춘 걸작"이라는 게 최 석좌교수의 평가다.

이어 "사찰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정비하며 중요 국가유산으로의 승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물로 지정된 범종 가운데 국보로의 승격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고려 범종 중 가장 으뜸으로 꼽힌 종이 바로 '내소사 동종'"이라며 "한중서라는 최고의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가치 외에도 아름다운 세부장식은 고려 범종의 백미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 컬링, 낙산사 템플스테이서 체험하세요

**12월 26~28일 컬링템플스테이**
**소리명상, 스님 차담 등 구성**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상.

여름엔 서핑, 겨울엔 컬링.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가 또 한번 새로운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낙산사는 "오는 12월 26~28일 2박 3일 동안 겨울 이색 체험으로 '컬링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컬링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중에게 친숙해진 스포츠지만 여전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동계스포츠다. 스톤을 과녁 중심에 정확히 보내기 위해 필요한 극도의 집중과 몰입이 불교명상과 닮아 있다.

낙산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컬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더불어 바다를 마주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파도명상',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심신을 이완시키는 '소리명상', 개인적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스님과의 차담, 즉문즉설'도 함께 진행한다.

여름 시즌 '서핑템플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선일 스님은 "명상 원리를 현대적 체험과 결합해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아울러 자연과의 조화로운 수행을 경험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컬링템플스테이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https://naksansa.templestay.com)에서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 단체예약은 별도 문의. 신중일 기자

## 미디어아트로 만나는 의상 스님

**'바다 건너온 법성세계' 개막**
**11월 23일까지 토포하우스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이 13세기 '법성게' 선율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음악을 들으며 수행하는 듣기명상(호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송정인 수습기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와 불교문화콘텐츠개발원(원장 우석 스님)은 11월 14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바다를 건너온 법성세계'를 개막했다.

이번 문화체험전은 의상 스님의 전기(傳記)를 회화로 기록한 '화엄연기(華嚴緣起)'를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표현,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감동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일본 쇼묘지에 전하는 13세기 자료 '화엄원융찬'의 성명보(聲明譜)를 근거로 복원한 악보를 통해 그동안 잊혔던 우리의 '법성게' 선율을 명상곡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불교사상과 수행의 궁극이라 일컬어지는 의상 스님의 저술 '일승법계도'를 주제로 기획한 '법성게'의 쓰기·읽기·그리기·듣기·걷기 등을 통해 누구나 '오척법성의 몸'으로 화엄의 세계를 온전히 느껴볼 수 있게 전시됐다.

의상화엄 문화체험전 추진위원장 우석 스님(화엄사 주지)은 개막식에서 "전시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의상 화엄의 울림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법성가의 구래불(舊來佛)이자 여래출현(如來出現)인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상 스님 문화체험전은 11월 23일까지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 방글라데시-스리랑카, '지속가능' 불교 순례지 개발

**11월 11일 스리랑카서 MOU 체결**
**불교·차 문화유산 잇는 생태 관광**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양국 내 지속가능한 불교 순례지 개발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불교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지난 11월 11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양국의 회의 결과를 인용해 해당 개발계획을 보도했다.

아루니 라나라자(Aruni Ranaraja) 장관이 이끄는 스리랑카 외교부는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관광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강조했다. 논의에서는 불교 성지 순례 코스를 중심으로 녹색 관광, 차(茶) 문화유산 루트를 장려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이 논의됐다.

논의된 주요 프로젝트 중에는 불교 유적지와 양국의 특산품인 차 생산 지역의 연계를 통해 양국을 연결하는 공동 관광 루트 개발이 있다. 스리랑카의 주요 불교 성지인 캔디의 불치사, 아누라다푸라의 보리수나무, 담불라 동굴사원 등과 방글라데시의 파하르푸르에 있는 소마푸라 마하비하라 유적, 나오가온에 있는 고대 불교 승원 유적지를 연결하는 불교 관광 순환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마푸라 승원은 인도의 날란다 대학과 함께 대승불교가 꽃피던 시절 전 세계의 구법승들이 모이던 대학으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그 인지도가 낮아 방문객이 적은 실정이다. 여기에 실론티로 유명한 스리랑카의 차 산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릉 지대의 차 농장과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스리랑카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양국은 불교와 차라는 공동의 문화적 유산을 근간으로 지역 환경 보호 노력을 통합한 생태 숙박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정부는 생태 보존과 지속가능한 여행에 중점을 둔 '녹색 관광'을 협력의 핵심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이미 다양한 경관과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스리랑카는 방글라데시의 자체 생태 관광 모델 개발 지원에 관심을 표명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순다르반스 맹그로브 숲 등 다양한 자연유산을 보유한 방글라데시는 현재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양국 관계자들은 공동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와 방문객 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간의 직항편 운행 협약도 진행되고 있다.

콜롬보에서 체결된 관광 협력 양해각서(MOU)는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광 부문에서 책임 있는 여행과 탄소 감축을 향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는 불교 성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사진 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AI에게 '마음상담' 해보니…'신통방통'하네

##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직접 체험해 보니

**동국대 종학연구소 주최로 열려**
**번아웃 · 스트레스 등 AI 진단**
**기자에게 "스트레스 관리" 조언**
**'5분 명상' 솔루션 제공…장벽 낮춰**

**뇌파 측정해 두뇌 컨디션 확인**
**미디어아트 작품 '인간의 거울'**
**AI가 감정 · 상태 관찰한 '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정보의 틈새를 찾는 딱지벌레처럼 보여요. 아마 뭔가 엄청 복잡한 것을 탐색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AI)이 기자를 관찰·평가하고 이야기해 준 내용 중 일부다. 추상적인 표현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만, AI가 인간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눈앞에 왔음이 여실하게 느껴졌다. 기자가 체험한 AI는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개최한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작품 '인간의 거울'(2025)이다.

현장에서 만난 김원화 작가(대구가톨릭대 인터미디어아트과 교수)는 "동화 '백설공주'에서 왕비가 거울에게 자신을 물어보는 것처럼 인간은 유사체에게 자신을 투영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경향을 AI를 통한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것이 '인간의 거울'이다. AI가 전하는 답을 스스로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1월 14일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마련된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 행사에서 미디어아트 '인간의 거울'을 체험하는 기자. AI가 인간을 관찰해 감정 상태와 기분을 분석해 이야기해 준다.

### AI 심리상담, 생각보다 '혹'한다

11월 14일 동국대 중앙도서관 IF존에 마련된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은 총 3가지로 나뉜다. A존은 AI 심리상담, B존은 디지털 마음진단, C존은 '인간의 거울' 작품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든 구역이 마음상담을 받기 위한 동국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기자는 4가지의 AI 상담과 디지털 진단 검사를 받았다.

A존에 설치된 대화형 AI 심리상담 체험 'AI로 만나는 내 마음'은 키오스크 기반 시스템으로, 키오스크에 자신의 고민과 감정을 입력하거나 진단해 보고 싶은 테스트를 선택해 설문을 하면 AI가 이를 진단해 결과를 제공한다.

기자는 'AI 마음건강 진단'과 'AI 고민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AI 마음건강 진단'을 통해 '번아웃증후군' 검사와 '지각된 스트레스'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생각 이상이었다.

AI는 "'번아웃증후군'의 위험도는 낮지만, '업무 이후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은 현재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환경 조정이나 적절한 업무 분배가 필요하며 주변 동료나 상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단 결과는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해 받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결과지에 있는 QR코드로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개발한 '5분 명상'을 솔루션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명상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에게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AI 마음건강 진단'과 'AI 고민상담'의 결과지들.

### 내 두뇌 · 신체 컨디션 시각화 '눈길'

B존 '디지털 마음진단'은 옴니핏마인드 케어, 유비오맥파, 마음결베이직 등 첨단 장비로 뇌파와 맥파를 측정해 스트레스·집중도·감정상태를 데이터로 시각화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기자는 옴니핏마인드 케어에 참여했다. 머리와 귀에 헤드셋 측정기를 착용한 뒤 눈을 감고 1분여 간 검사를 받으면 뇌파와 맥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 및 두뇌 건강 데이터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기자의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했다. 이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두뇌 및 신체 컨디션이 양호한 편이다. 다만 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뇌파의 고유리듬(PF)과 맥파에서 측정된 누적피로도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나타난다"고 말했다.

자신의 두뇌와 신체 상태를 첨단장비로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었으며, 학교나 직장 등에서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됐다.

이 같은 AI·디지털 마음돌봄 체험은 동국대 학생들에게도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디지털 마음진단에 참여한 문석빈(산업시스템공학과) 씨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의 결과가 제 생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올 것 같다"고 말했다.

---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⑲ 중생공양 제불공양

# 존중과 배려가 공양이다

**衆生供養 諸佛供養**

세간에서 불교를 떠올리면 흔히 '탐욕과 분노를 비우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수행과 명상이 확산되면서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반면 그리스도교는 '사랑'과 '이웃을 위한 헌신'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교는 자기 마음만 닦을 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메시지는 약하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지혜의 증득과 열반에만 집중하느라 붓다의 자비 가르침을 충분히 탐구하지 않은 점이다. 둘째,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보살사상이 존재함에도 그 가르침이 현실의 실천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불교 경전 속에는 자비와 헌신의 가르침이 분명히 살아 있다.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이 있으며, 사랑[慈]·연민[悲]·기쁨[喜]·평정[捨]의 사무량심이 있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과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은 자비실천의 상징이다.

공양(供養)은 자비가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보현보살의 광수공양원(廣修供養願)은 공양의 의미를 이렇게 밝힌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니라. 법공양이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거두어 주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구도심을 잃지 않는 공양이니라."

공양은 단순히 음식이나 재물을 부처님이나 승가에 바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양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이웃이며, 그 방식은 각자의 고통과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 목마르고 배고픈 이에게는 물과 밥이 최고의 공양이고, 아프고 가난한 이에게는 의료와 복지가 공양이다.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이를 위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 주는 것 또한 공양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 돌보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공양이다.

〈화엄경〉은 "중생이 기뻐하면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고, 중생에게 공양하면 곧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비의 근원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며, 공양은 그 존중을 실천으로 옮기는 배려다.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든 언행이 공양이자 보살행이며 수행이다.

이제, 사람 사는 마을로 공양 올리러 가자.

〈화순 불암사 주지〉

---

# AI DJ '보리', 불교방송 데뷔 '화제'

**11월 8일 첫방…매주 주말 방송**
**직접 원고 쓰고 음악 선곡 척척**

인공지능(AI) DJ가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 이하 불교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 데뷔했다. 전통 라디오와 최신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라디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평가다.

불교방송은 11월 8일 AI 라디오 방송 '보리의 음악편지'를 선보였다. 가을 개편을 통해 신설된 '보리의 음악편지'는 방송국 마스코트 '보리'가 AI 기술로 목소리를 얻고 라디오 DJ로 데뷔하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AI DJ 보리는 미리 작성된 대본을 읽는 것을 넘어, 직접 방송 원고를 작성하고 음악을 선곡하며 청취자와 소통하는 능동적인 진행자로 활약한다.

첫 방송에서 보리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좋은 음악과 함께 천천히 다가가겠다"는 인사로 청취자들과 교감했다.

라디오 제작에 있어 생성형 AI의 도입은 단순 음성 합성을 넘어 방송 제작의 효율성 향상, 콘텐츠 다양성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음악 선곡에 있어서도 AI는 개인의 취향이나 경험에 머물지 않고, 방대한 음악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폭넓은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또한 청취자 반응 패턴, 시대적 이슈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방송을 구성할 수 있어 청취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불교방송의 설명이다.

문재식 라디오제작국장은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라디오를 시도하는 동시에, 불교적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담아 감동과 의미가 공존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한다"고 프로그램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중일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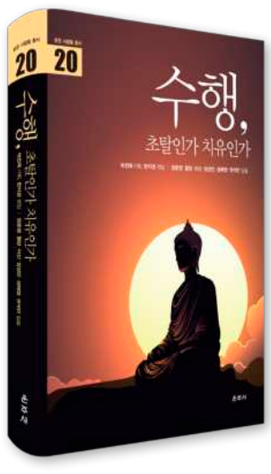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3,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20,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3,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외/25,000원




수행의 관점에서 초탈과 치유라는 두 개념을 탐구하여, 수행이 단순히 내적 성장이나 영적 해탈을 위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정준영·월암·미산·엄성민·성해영·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6,000원




Ch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9~11/2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꽃비 오니 봄날이다 | 동은 | 조계종출판사 | 6 | 가시를 거두세요 | 광우 | 쌤앤파커스 |
| 2 | 금강경선물 | 박혜상 | 불교신문사 | 7 | 지금 이대로 좋다 | 법륜 | 정토 |
| 3 | 매일매일 천수경 | 동명 | 조계종출판사 | 8 |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 | 자현 | 불광출판사 |
| 4 |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 법륜 | 정토 | 9 |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 원철 | 불광출판사 |
| 5 | 스스로 행복하라 | 법정 | 샘터 | 10 |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 자현 | 담앤북스 |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요가디피카 | 선요가 | 아헹가/현천 역 | 6 | 월호스님의 게송명상 | 맑은소리맑은나라 월호 | |
| 2 | 들숨 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 초기불전연구원 | 대림 스님 옮김 | 7 | 부처님의 당부 | 사유수 | 비구 보디/등현 감수 |
| 3 |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 운주사 |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 8 | 흔들릴땐 마음수업 | 모과나무 | 법상 글/고통달 만화 |
| 4 |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 조계종출판사 | 무비 스님 지음 | 9 | 육조단경 | 광륜출판사 | 청화 역주 |
| 5 |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 오타쿠 | 김성철 | 10 |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향기로운이야기 | 불교신문사 | 법정/김계윤 그림 |

# 도영 스님의 "주인으로 사는 길"



어울리면 열리는 길
도영 스님 지음
효림 / 1만2000원

**지식·정보 시대 고립된 현대인**
**성찰로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
**"불교 윤리·청정성 회복 필요"**
**연재 법문·상좌와의 대화 엮어**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교적 윤리는 인간이 본래 지닌 청정성을 믿는 데서 출발하며, 그것을 일상에서 구현하려는 지속적인 실천이다."

11월 20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의원 금산당 도영 대종사는 유작이 된 법어집 〈어울리면 열리는 길〉에서 불교적 윤리와 청정성 회복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스님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 오히려 진정한 만남과 소통은 상실한 채 고립되고 단절의 감각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모순은 결국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도록 만든다"며 "나의 행복과 안녕이 타자의 그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자각이 바로 불교적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불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소외와 고립, 경쟁과 배제의 문제를 성찰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인간을 독립적이고 고립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존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불교적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의 깨달음이 곧 타자의 깨달음과 맞닿아 있음을 자각하는 데 있다."

1부 '주인되어 살자'는 지난해부터 월간 〈법공양〉에 연재한 법문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부처님과 옛 고승들의 일화에 스님이 수행하며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곁들여 불교의 핵심을 설명한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금산당 도영 대종사는 법어집 〈어울리면 열리는 길〉을 통해 불교적 윤리와 청정성 회복을 설파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부 '본래 청정과 불교적 인간'은 도영 스님이 상좌 법진 스님과 평소 나눈 대화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이다. 초기불교의 연기와 중도 사상, 대승불교의 반야중관 사상과 여래상 사상, 중국 선종의 가르침이 모두 '인간 본성은 원래 청정하다'는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밝히고, 중도와 바라밀 등 윤리적 실천을 통해 열반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영 스님은 "세상과 단절된 자아는 끝내 닫힌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계와 인연 속에서 어울림을 실천하는 자는 스스로의 삶을 열어가며, 동시에 타자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불교적 윤리의 길 위에서 자신과 타자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조화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깨닫게 하다



금강경 직지설법 1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1만6800원

**김태완 원장의 〈금강경〉 강설**
**공부·체험 바탕 '깨달음의 길'**

김태완 무심선원장의 〈금강경〉 강설집이다. 저자는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켜 보여 주고자 한 것, 즉 '모든 것의 바탕인 본래 마음'과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도록 다양한 비유와 설명으로 안내한다. 경전 구절을 하나씩 풀이하며 법이 설해진 배경과 의미를 밝힌다.

'대승정종분' 해설에서는 "〈금강경〉이라고 하면 대게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나 '응무소주 이생기심' 같은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는데,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이 선(禪) 공부가 바로 대승 불법의 바른 공부법이고 지름길이다. 매일매일 법회 참석하고 법문 듣는 것이 깨달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강경〉 강설집의 1권에는 법회가 일어난 인연을 밝히는 '법회인유분'부터 바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은 '존중정교분'까지의 설법이 담겨 있다. 앞으로 출간될 2권은 '여법수지분'에서 '구경무아분', 3권은 '일체동관분'에서 '응화비진분'까지 실릴 예정이다.

저자는 동국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중국 조사선의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승인 박홍영 거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선을 참구하기 시작했다. 2001년 부산에서 무심선원을 개원해 수행자들을 이끌고 있다. '현대인을 위한 선어록 읽기' 시리즈와 '선으로 읽는 경전' 시리즈 등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여수령 기자

# 우리 시대의 불교를 다시 묻다



불교 이후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운준사 / 3만원

오늘날 불교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가까이에 들어와 있다. 최근의 '힙불교' 열풍뿐만 아니라 명상을 향한 대중적 관심, 이웃 종교와의 활발한 교류, 기후 위기와 인권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과거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재적 의미로 되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됐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 불교 사상가 스티븐 배철러(Stephen Batchelor)의 〈불교 이후〉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한국·인도서 수행한 불교 사상가**
**형이상학 불교에서 경험의 불교로**
**세속 시대를 위한 불교의 재해석**

저자는 1974년 21살의 나이에 출가해 7년간 인도, 스위스, 독일에서 티베트 겔룩 전통의 스승들과 수학했다. 1981년 5월에는 송광사에서 방장 구산 스님의 지도로 선불교를 수행했다. 이 같은 경험과 공부를 토대로 저자는 불교를 다시 '지금 여기의 삶' 속에서 읽어 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책의 근본적 질문은 단순하다.

"현대 세속 사회에서 불교의 다르마(법)를 어떻게 살아 있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는 불교를 초월적 신념이나 형이상학적 진리 체계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지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가 특정한 교단 구조나 신화적 권위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 시대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전통적 사성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한 '네 가지 과제(The Four Tasks)'에 집약된다. 그는 사성제를 고통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고, 평정 속에서 행동하며, 그 길을 지속하는 수행의 과제로 재구성한다. 이는 깨달음이 초월적 경지가 아닌 당장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태도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불교를 '궁극적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로 이해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공성(空性)의 개념 또한 초월적 실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감수성, 즉 "이 땅에서 깨어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또한 불교를 절대화하거나 신비화하려는 시도 대신, 구체적 경험에서 시작하는 '세속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속'은 단어의 본래 의미인 '이 시대, 이 세계'이며, 이는 불교가 내세보다 지금의 세계에서 수행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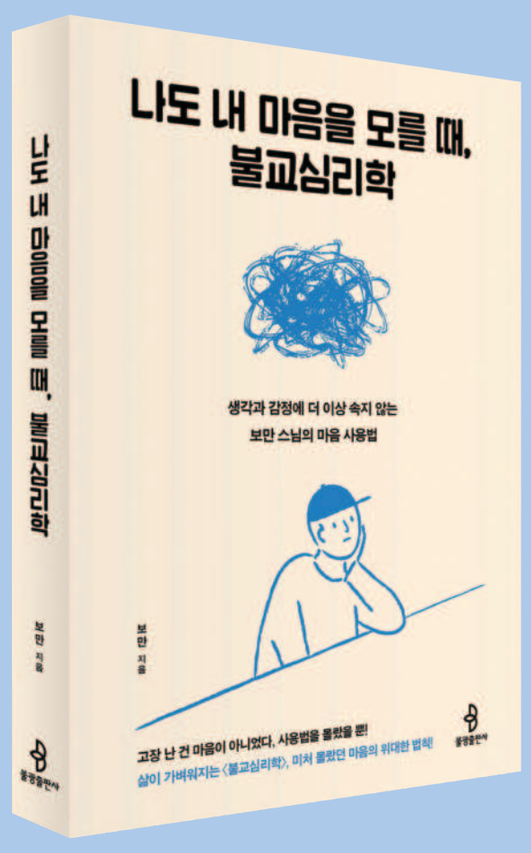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 인류가 마주한 문제에 불교가 응답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수행자로서의 진지함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함께 담겨 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송광사에서의 경험은 이 책에 제시된 불교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며 "화두 수행은 의심(疑心)의 중심성을 이해하게 해 주었고, 이는 다양한 불교적 실타래들을 '세속 다르마'라 부르는 것으로 엮어 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자꾸만 뚝딱거리는 내 마음, 고장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삶이 가벼워지는 〈불교심리학〉,
미처 몰랐던 마음의 위대한 법칙!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 288쪽 | 19,000원

★☆★ 화제의 베스트셀러!
출간 즉시 교보문고·YES24 종교 분야 1위!

유튜브 '명강의'로 입소문이 난 〈불교심리학〉
★ 웃음으로 시작해 깨달음으로 끝나는 마음공부, 그 현장의 후기 ★
"쇼츠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물 발굴한 기분이에요!" _ oo*****
"마음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군요!" _ gr*****
"늦은 시간 잠을 미루며 듣게 되는 명강의입니다" _ c8*
"보만 스님 강의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_ el******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 손끝으로 장엄하는 괘불탱



우리가 사랑한 괘불탱, 마음 챙김 컬러링 북
성보문화유산연구원 지음
제이펍 / 1만9800원

**국보·보물 괘불탱 18점 컬러링**
**10년 조사 성과 대중에 첫 소개**
**도판 감상하며 해설로 이해 높여**
**"색 채우는 과정이 곧 마음 수행"**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사찰의 큰 법회 때만 공개되는 장엄한 불화 '괘불탱'을 일상에서 감상하고 직접 색칠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국가유산청과 괘불탱 조사를 진행해 온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최근 국보 4점과 보물 14점을 수록한 〈우리가 사랑한 괘불탱, 마음 챙김 컬러링 북〉을 펴냈다. 국보인 △부여 부량사 미륵불 괘불도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탱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을 비롯해 보물인 △포항 보경사 괘불탱 △적천사 괘불탱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 등 총 18점을 담았다.

책은 전통 불교회화의 미감을 손끝으로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작품마다 원형을 충실히 반영한 도판을 배치해 괘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또 작품 감상 포인트와 색 정보, 괘불탱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세부 문양, 색칠 가이드를 제공해 불화의 상징과 구도를 이해하며 색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철 제본 방식으로 제작돼 펼침이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국가유산청·국립문화유산연구원·조계종과 함께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64점의 괘불탱을 조사해 안료와 제작 기법, 그림에 담긴 상징을 밝혀 왔다.

이들은 "괘불탱은 우리 문화와 정신을 보여 주는 중요한 기록"이라며 "수백 년 전 화승(畫僧)의 손끝에서 탄생한 괘불은 당시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 책은 그간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괘불탱을 대중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소개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컬러링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불교미술의 정신성과 아름다움을 체험하길 바란다"며 "색을 채우는 과정이 곧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유·무형 유산을 조사·연구·보존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불교 문화유산 전문 조사 기관이다. 〈한국의 불화〉(전 40권), 〈한국의 불화 화기집〉, 〈한국의 사찰 벽화〉를 출간했다.



책은 우리나라 대표 괘불탱을 색칠하며 감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 사진 제공=제이펍

# 영화로 읽어 낸 흥미진진 차 이야기



차가 일상
김소연 지음
아트레이크
2만2000원

**'차 덕후' 기자의 인문 해설서**
**어원부터 분류법·상징 등 설명**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말차(抹茶)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도 말차를 활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녹차를 갈면 말차가 되는 거 아냐?"

아니다. 말차는 채엽 20일 전쯤 빛을 가려 재배한 찻잎을 찌고 말리고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 만든다. 녹차보다 공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맥을 제거하고 갈아 내 쓴맛이 덜한 것이 특징이다.

〈차가 일상〉은 30여 년 경력의 기자가 차에 관한 역사·문화·예술 이야기를 풀어 낸 책이다. 1장에서는 차를 가리키는 용어인 'Tea'와 'Cha'의 어원과 대표적인 차 분류법인 '6대 다류' 등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아편전쟁과 보스턴 티 파티 등 세계사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차 이야기를, 3장에서는 백차·녹차·황차·청차·흑차·보이차의 역사와 특징을 들려 준다. 4장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홍차, 5장은 대만차와 일본차, 인도차, 케냐차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6장에서는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타샤 튜더', 오페라 '나비부인' 등 대중매체에 나타난 에피소드를 통해 차 한 잔이 인물의 서사와 감정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저자는 매경이코노미 국장으로 4년간 매일경제신문에서 발간하는 경제 월간지 〈럭스멘〉에 '김소연 기자의 영화로 보는 차 이야기'를 연재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말차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차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 〈차가 일상〉이 출간됐다. 사진은 다완에 담긴 말차. 사진 출처=픽사베이

# "울어도 쓰러져도 삶은 다시 피어난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원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해 온 원영 스님이 이번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산문집을 출간했다.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바람에 한기가 스며드는 계절이면 마음 한편에 외로움이 더해진다. 새해의 굳은 서원은 모두 어디로 사라지고 달력의 마지막 장만 남겨 두게 된 것인가. 허망함에 자책감은 더욱 쌓인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해 온 원영 스님이 이번엔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산문집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로 찾아왔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도, 끝내 삶은 살아진다는 희망을 담아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죠. 하지만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꿈을 포기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영 스님은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지는 삶'의 가능성을 일깨운다. 수행의 언어를 빌리되 강권하지 않는다. 모난 감정과 관계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내적 갈등과 흔들림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독자 역시 자신의 현실을 조용히 인정하도록 이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열정도 내게 분노나 괴로움을 준다면, 우선은 그 열정부터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쉼 없이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 지치고 힘들다면 일단 한숨부터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스님은 절망의 언어인 '포기'를 재해석한다. 포기는 실패나 도망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지혜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집착을 놓아 버릴 때 비로소 삶이 새롭게 열리는 이치는 불교의 오랜 가르침이기도 하다.

스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無常), 삶은 연결 속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관계와 연대', 꺼지지 않는 불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는 '내면의 불씨', 놓아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비움과 새로움'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그리고 알면서도 차마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한다. "꽉 쥔 손에 힘 좀 빼 보면 어때요? 때로는 울어도 괜찮아요. 곧 봄이 올 거예요!"

**불교 '일타 강사'가 전하는 위로**
**지치고 힘들어도 '삶은 살아진다'**
**무상·관계·연대·비움의 가르침**


"당신은 오늘, 마음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법구경
마음에게 말을 걸다
윤창화 | 304쪽 | 13,500원

"오늘도 간신히 버텼다."

이 짧은 고백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불면의 밤, 무너지는 관계와 일상.
우리는 모두 지쳐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오히려 단 한 줄, 귓가에 스며드는 따뜻한 위로,
그것은 붓다의 한마디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 “수행으로 만난 불사, ‘수행’까지 왔네요”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

**‘수행’ 주제 ‘3년 연찬’ 진행**
**총서 20권 주제 오래전 낙점**
**“한 권으로 끝내긴 너무 방대**
**수행 전반~간화선, 모두 다뤄”**

**간화선 프로그램서 수행하면서**
**수불 스님과 인연…연구소 맡아**
**“총서 25권까지 제작하고파” 서원**



담천 박찬욱 소장이 밝은사람들연구소 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위로 누나만 다섯이었던 소년은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기울어진 가세를 일으켜야 했기에 더욱더. 스스로의 부담감에 짓눌리던 청소년기에 만난 불교는 새로운 세계였다. 재수하며 동국대 불교학과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주위의 반대로 한국외대 중국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무역상사에 입사했다.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다. 수행을 하고 싶었다. 대학 때에도 불교와 요가, 힌두 등의 다양한 수행서적을 섭렵했던 그였다. 결국, 잘나가던 무역상사에 사표를 던지고 대한적십자사로 이직했다. 여유 시간이 생기자 불교 수행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40대 중년이 된 그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했다. 대한적십자사를 떠나 불교계로 왔다. 사찰 종무원부터 재가자 수행 프로그램 연구위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그러던 2004년 그는 수불 스님이 운영한 간화선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인연을 맺었다. 2년 뒤 수불 스님은 “불교와 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담론을 논의할 전문 연구소를 만들고 싶은데 그대가 맡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곧바로 수락했다. 이것이 밝은사람들연구소의 시작이다.

2006년 문을 연 밝은사람들연구소는 창립 2년차 때부터 획기적인 기획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14일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주제의 첫 학술연찬회는 불교학뿐만 아니라 서양철학, 생물학 등 인접학문까지 영역을 넓혀 ‘욕망’의 실체에 접근하려 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매회 연찬회장은 가득 찼다. 수불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한 학술연찬회가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그리고 이를 끌어온 사람이 담천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이다.

### “수불 스님의 원력 구현하는 일꾼”

연구소를 20년 가까이 이끌며 박 소장은 총 20권의 총서를 기획·출간했고, 관련해 스무 번의 연찬회를 개최했다. 그에게 소회를 묻자 “(간화산)수행으로 인연돼 ‘수행’으로 연찬회까지 하게 됐다”면서 “저는 수불 스님의 원력을 실무적으로 구현하려 한 일꾼”이라고 술회했다. 스스로 ‘일꾼’을 자처하며 겸양했지만, 20권의 총서와 20회의 학술연찬회를 이끈 중심에는 박 소장이 있다.

밝은사람들연구소도 처음에는 여느 학회와 비슷했다. 2006~2007년까지는 1년에 2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행사장에서 학술자료집을 배포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 대회장에서 나와도 널리 전해지지 못했고, 자료집은 방치됐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밝은사람들 총서’ 발간이다. 연찬회 주제에 맞는 전문학자를 섭외해 논문 원고를 청탁하고 이를 총서로 묶어 출간해 연찬회의 자료집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학술자료집이 방치되고 내용이 유포되지 않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식으로 바꿨죠. 저자 이름으로 총서가 출판되니 책임감이 커지고 논문 완성도도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이 방식이 총서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핵심이었고, 연찬회의 질도 함께 올라갔죠.”

총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주제도 변화해야 했다. 키워드 같은 주제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필진도 불교 외에 철학, 심리학 등 인접학문으로 확장됐다.

“불교는 ‘괴로움과 그 탈출’이라는 인간학적 문제를 다룹니다. 욕망, 몸, 행복, 죽음, 마음 등은 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이슈지요. 그 실체에 다가가려면 철학·심리학·정치·문화 등 인접 학문과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사업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펜데믹을 연구소도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팬데믹을 버텼죠. 하지만 끝난 뒤도 원상회복은 어렵네요. 본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의 240석을 가득 채웠는데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보게 되니 현장 참여가 좀 줄었어요. 그래도 100여 명 이상은 꾸준히 연찬회장을 찾습니다. 주위에서는 별도의 학회원이 없는데도 이 정도 학술연찬회에 사람들이 찾는 것은 선방하는 거라고 합니다.”

### ‘수행’ 주제 총서는 오랜 숙원

올해 20회 연찬회의 주제는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로, 밝은사람들연구소는 ‘수행’을 대주제로 3년간 학술연찬결사를 진행한다. 11월 29일 동국대 남산홀에서 열리는 올해 연찬회에는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을 비롯해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권석만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행 전반에 대해 조명한다.

“밝은사람들 총서 20권의 주제를 ‘수행’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오래전에 세워놓았습니다. 총서 20권을 ‘수행’으로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권으로 끝내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아까웠어요. 앞으로 3년간의 학술연찬회와 총서 발간을 통해 수행의 뿌리부터 한국불교의 전통까지 체계적으로 펼쳐 보고 싶습니다.”

올해 연찬회가 ‘수행’의 면면을 큰 틀에서 다뤘다면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2026년 11월에 열릴 연찬회에서는 ‘지관, 따로 닦나 함께 하나’를 주제로 초기·대승불교와 티베트·중국·한국불교, 종교학,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불교 수행의 핵심인 지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027년 11월 개최되는 연찬회에서는 ‘간화, 전통의 계승인가 창발적 혁신인가’를 주제로 초기·선불교와 불교학, 종교학, 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 간화선의 면면과 그간의 연구 현황들을 조명한다. 연구소가 추진하는 3년간의 대장정에는 월암 스님, 미산 스님을 비롯해 정준영·이필원·권석만·박성현 교수 등이 주요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수행을 어떻게 개념 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불교의 ‘바와나’는 마음 개발(Bhāvanā)을 뜻하며, 현대 명상(Meditation)은 사유 또는 치유 중심입니다. 서구 명상 역시 자본주의 영향 속에서 치유·스트레스 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맥마인드풀니스’와 같은 비판도 함께 수반되는데, 최근 서구 심리학계 역시 한계를 인식하고 자비·지혜 쪽 논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연찬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박 소장에게 “‘수행’을 끝으로 총서를 회향하냐”고 물었다. 그는 “수불 스님의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조심스레 “3권을 더해 총 25권으로 총서 발간 불사를 회향하고 싶다”고 서원했다. ‘수행’과 연관·확장된 주제로 총서를 더 내보고 싶다는 것이다.

“불교의 핵심은 수행입니다. 수행의 스펙트럼은 넓어야 합니다. 기사 쓰는 것도, 축구도, 연애도 마음 자세에 따라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수행이다’라고 하면 불교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지요. 삶 전체가 수행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총서나 연찬회, 동영상을 접해 삶이 개선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연구소를 창립하신 수불 스님의 원(願)이며, 저의 원이기도 합니다.”

# ‘이고득락’ 화두, ‘수행’으로 새 장 열다

**밝은사람들 이끈 주역들**

### 20번째 총서·연찬회…3년간 수행 주제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몸, 마음 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 이하 연구소)는 2008년 총서 첫 책과 연찬회를 시작으로 매년 불교에 바탕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왔다.

올해는 스무 번째를 맞아 ‘3년 결사’를 선언했다. 11월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를 시작으로 내년 ‘지관(止觀), 따로 닦나 함께 하나’, 2027년 ‘간화(看話), 전통의 계승인가 창발적 혁신인가’를 주제로 ‘수행 3부작’ 연찬회를 개최키로 한 것.

그간 총서 발간과 연찬회를 이끌어 온 주역들이 11월 14일, 서울 안국선원에 모였다. 2006년 연구소 설립을 제안한 수불 스님(안국선원장)과 실무를 맡고 있는 박찬욱 연구소장, 초대 연찬회 좌장이자 발제자로 참여하고 있는 미산 스님(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현 연찬회 좌장인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총서 출간을 맡고 있는 김시열 운주사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밝은사람들연구소의 총서 발간과 연찬회를 이끌어 온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1월 14일 서울 안국선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만난 김시열 운주사 대표, 박찬욱 소장, 수불 스님, 미산 스님, 한자경 교수(왼쪽부터).

수불 스님은 “불교가 사회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종교와 사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연구소를 설립했다”며 “20여 년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원력 덕분”이라고 인사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수불 스님은 특히 간화선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님은 “간화선으로 올바른 지혜가 열리면 대긍정의 사고가 가능해지고, 대긍정의 사고로 화합의 바탕을 열 수 있다”며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간화선으로 통찰력을 기르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산 스님은 “1회부터 4회까지 좌장을 맡은 인연이 여기까지 이어졌다. 인문사회·자연과학적 핵심어들을 불교 전통 내에서 다룸으로써 학문 간 소통을 시도해 보고자 했고, 충실하게 내용을 채워 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수행자로서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에서 무심(無心)으로 지원해 주신 수불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욱 소장은 연구소의 지향이 ‘이고득락(離苦得樂)’임을 분명히 했다. 박 소장은 “스무 번째 연찬회 주제를 ‘수행’으로 선정한 것은 수행 전통을 살펴보고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수행 방편을 모색함으로써 각자에게 알맞은 수행은 무엇인지 사색해 보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작업이 우리의 인생 항로의 나침반을 점검하고 이고득락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자경 교수는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수행은 초탈과 치유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중도”라며 “초탈의 지향점이 곧 치유의 출발점이 되고, 치유의 완성점이 곧 초탈의 출발점이 된다. 초탈 없이 치유는 불가능하고 또 치유 없이 초탈 또한 불가능하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진속불이(眞俗不二)의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의의를 짚었다.

연구소는 여타 학술단체와 달리 책을 먼저 출간한 후 연찬회를 연다. 참가자들이 미리 발제문을 읽고 현장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배려다. 그동안 스님과 불교학자뿐 아니라 종교학·심리학·물리학·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63명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각 분야 최고의 필진”이라는 연구소의 소개처럼, ‘밝은사람들 총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 학술부문,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연찬회 주요 장면을 유튜브로 공개해 논의의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불교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수행과 명상의 현대적 의미’,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이 ‘선의 수행과 깨달음’, 미산 스님(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과 엄성민 데이터리퍼브릭 대표가 ‘불교수행과 명상과학: 초탈과 치유의 메타 융복합적 통합’,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신성한 독서(Lectio Divina)와 수행 전통의 통합적 이해’,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구도적 수행의 심리학’을 발표한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밝은사람들 총서 목록**

0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02.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03.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04.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05.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06.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07.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08.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09.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10.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11.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12.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13.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14.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15.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16.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17.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18.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19.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20.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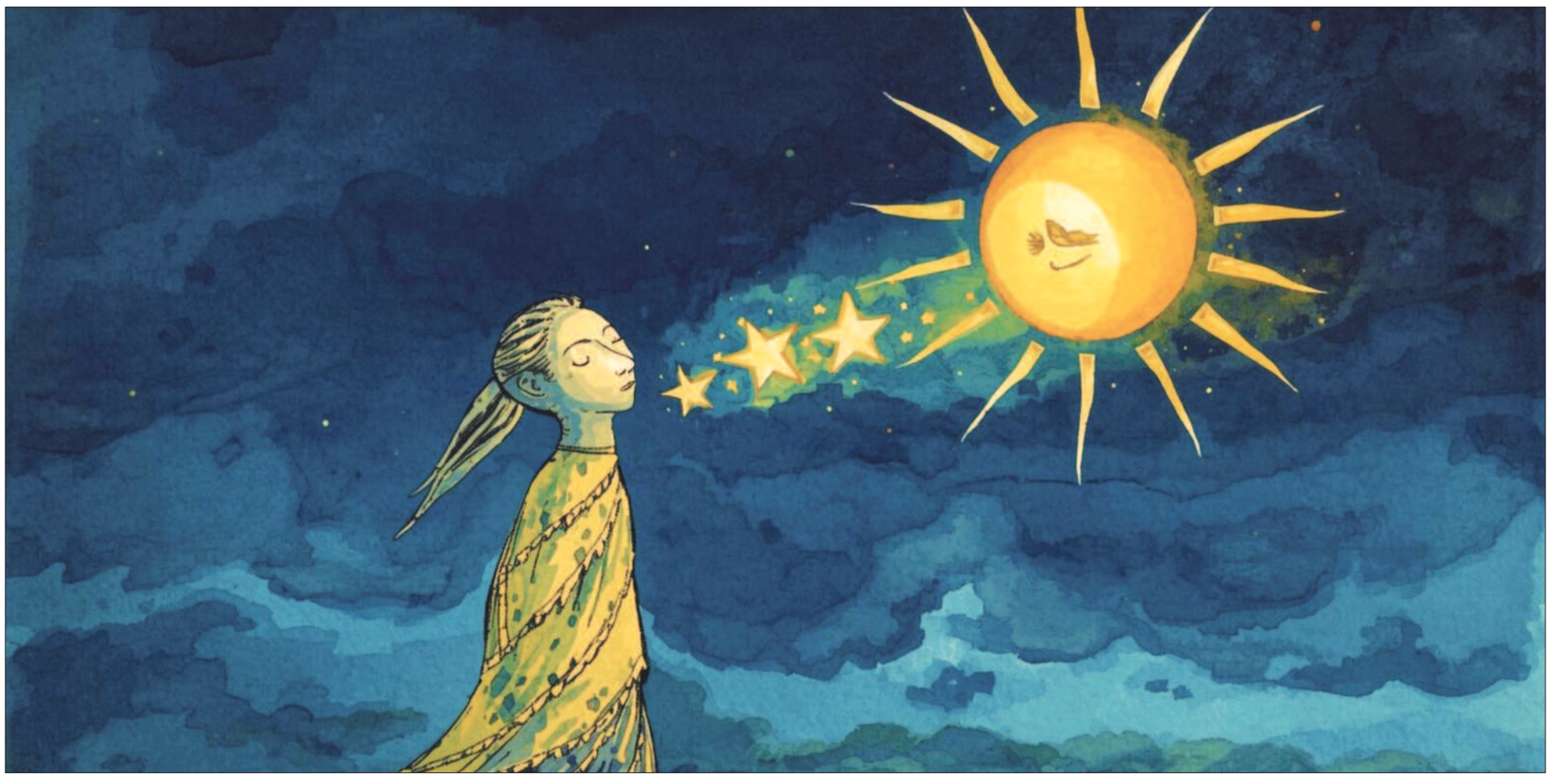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4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한줄 요약
감정은 인과(因果)의 근본이 되니,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아름답다

**[오늘의 명상]**
**고요한 밤하늘에 속삭이는 내 별 네 별**
**반짝반짝 별빛 모아 햇님이 되었나.**
**아침 햇살 동 터 오니 온 세상이 형형색색**
**내 마음 펼쳐진 모습 아름답기도 하여라.**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밤에는 밤대로 아름답고, 낮이면 낮대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모습들은 결국 내 마음의 형상이 눈을 통해 펼쳐진 것들입니다. 아름다움을 분별로서 본다면 추한 것 또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이란 분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서 보면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꽃은 어떤 꽃이라도 대개가 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을 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니, 만약 마음이 복잡하여 꽃을 볼 여유가 없다면 설사 꽃을 보아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꽃이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꽃을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음이 복잡하여 예쁘게 볼 수 없다면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분별을 짓는 마음 때문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해골 물을 먹고도 아무 탈이 없었던 것은 해골 물이라는 분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나 해골 물이라는 분별된 마음을 가진 즉시 토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어차피 중생의 마음 모양은 두 가지 분별로서 만들어졌고, 그 마음이 현현하여 사바세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분별심(分別心) 때문에 늘 복잡한 선택과 고민과, 탐진치(貪嗔痴-욕심, 성냄, 분별) 삼독심(三毒心)이 생기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됩니다.

불자라고 한다면 마음의 수준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저속한 마음에서 교양 있는 근사한 마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해서는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인과(因果)가 나타나는구나, 인연의 흐름이구나, 나의 업(業)이 나타나는구나, 이득과 손해는 결국 없는 것이니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겠구나,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려운 업이 생길 시간이 되었구나, 정말 싫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싫은 감정이 드러나는구나, 조급한 것은 내 마음이 아직 여유가 없구나하고 늘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업(業)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옳고 그름, 하고 하지 않고는 얼마든지 해도 좋으나, 좋다 싫다는 감정을 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은 인과(因果, 원인 결과)의 근본이 되니,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보시(布施, 베품), 참선(參禪, 분별하지 않는)과 정진(精進, 향상)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모습은 나의 눈을 통해 나타난 것**
**분별이 있어 美醜, 善惡 경계가 생겨나**
**감정, 인과의 근본…감정 드러내지 말라**
**기도, 보시, 참선은 어려움 극복하는 힘**

**[오늘의 명상]**
**장마 땐 해 그립고 가뭄 땐 비 그리워**
**장마 길어도 먹구름은 걷어지고**
**가뭄 길어도 비구름은 올 것인데**
**그리운 마음만 애간장을 태우네.**

밤낮이 있어서 하루가 완성되고 4계절이 있어서 1년이 완성되듯 유년기와 청년기, 장년기와 노년기가 있으니 일생이 완성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 없는 기쁨은 없는 것이고, 사라짐이 없이는 탄생의 의미가 없듯이 죽음이 없는 태어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습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를 의지하며 굴러가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택할 수도 없고 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없는 것이 되니 둘 다 버리던지 아니면 둘 다 받아들이던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둘 다 받아들이는 것과 둘 다 버리는 것은 차이가 없으니, 결국 같은 것이 됩니다.

둘 다 버린다는 의미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서 깨달음의 경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둘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인과의 도리를 의심 없이 바라보고 수용한다는 뜻으로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한쪽만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심(無分別心)의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선도 악도 정의도 불의도 그 어느 것 하나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될 것이나, 버리려면 둘 다 버려야 합니다.

본래 선악(善惡)과 정부(正否)도 없는 것이나, 인간들의 무명(無明)에 의한 분별심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택하려다 보니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명료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마음과 세상의 모습은 이것과 저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인과에 의해 인연 따라 오고 갈 뿐, 더 이익을 얻거나, 더 손해를 보거나,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인연(時節因緣)의 때가 되어 그저 인과가 나타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마음을 쓰면 쓸수록 복잡하게 되고, 번뇌로울 뿐이니, 일어나는 모든 일에 굳이 마음 써서 힘들어 하지 말고, 마음을 놓고 또 놓고 매사를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스스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극락을 선택하면 지옥이 따라붙고 낮을 선택하면 밤이 따라붙고 봄, 여름을 선택하면 가을, 겨울이 따라붙고 밀물을 선택하면 썰물이 따라붙고 멀리가면 멀리 와야 하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선을 선택하면 악이 따라붙고, 즐거움을 선택하면 괴로움이 따라붙고, 행복을 선택하면 불행이 따라붙고, 이기려 하면 지는 것이 따라붙고, 성공을 원하면 실패가 따라붙고, 얻으려 하면 잃는 것이 따라붙고…. 이와 같이 마음과 세상은 두 가지가 어울려서 완벽하게 굴러갑니다.

문제는 하나만을 선택하려는 마음입니다. 낮과 밤이 있어야 하루가 완성되듯이 이것과 저것이 함께 해야 일생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에 마음과 실제가 어긋나서 불편하고 괴롭게 되는 것이니,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거나, 하나만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하고 성내고 분별하지 않으면 티끌에도 걸림 없는 완벽하게 편안한 마음이 되나, 업으로 똘똘 뭉쳐진 몸과 마음이 쉽게 삼독심을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탐하고 성내고 분별을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찰나 간에도 잊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신구의(身口意-행동, 말, 생각) 삼업(三業)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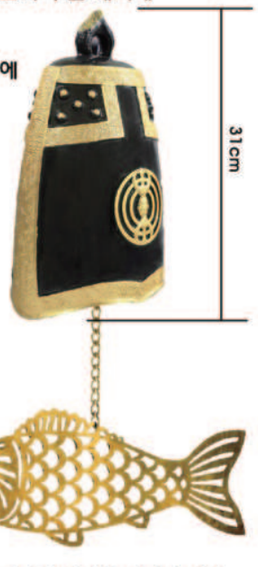
백제 풍탁(특대)
백제 미륵사지 풍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소리가 좋다! 아름답다! 튼튼하다!



聖鐘社

성종사에서 제작하여, 소리가 좋은 것은 기본이며, 아름답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미륵사지 풍탁으로 검색)

1. 튼튼한 스텐레스 소재의 링과 굵고 튼튼한 황동 체인,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2. 풍경의 소음 때문에 풍경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 요청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3. 바람판(물고기판)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꽃, 구름, 종기 등 다양한 형태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4. 표면의 종기 부분을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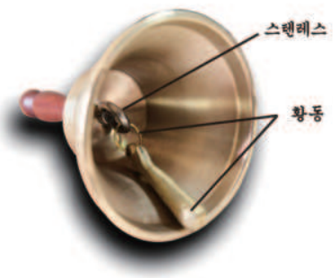

규격
- 종 : 19×14×31cm
- 바람판 : 30×13cm
- 가격: 120만원(개금 150만원)

조계종 화엄사, 광제사, 직지사, 석굴암, 천태종 구인사, 월명사 설치

성종사, 소리 좋고 튼튼한 명품 요령 출시!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성종사에서 범종용 합금으로 소리 좋고 튼튼한 요령을 출시하였습니다. (구입방법 : 네이버에서 소리 좋은 요령으로 검색)



규격 小 : 74×74×180mm / 198,000원
大 : 88×88×200mm / 242,000원




오래 사용하여도 끊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제작된 추와 링



선물용으로 적합한 최고급 포장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⑱ 관해(觀海, 寬海) 스님



▶한줄 요약
관해 스님은 17세기 중반 호남 지역에서 응원 · 인균 스님의 계보를 잇고 영산전 · 명부전 등 사찰 부속 전각의 불상 조성에 활약한 조각승이다.

# 17세기 중반 호남 명산대찰에 불상 조성

관해(觀海, 寬海) 스님은 17세기 전·중반을 대표한 조각승 응원(應元, 應圓) 스님과 인균(印均, 仁均, 印筠) 스님의 제자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당대 여러 명산대찰 전각에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이다. 스님은 초기에 스승인 응원·인균 스님을 보조하며 불상 조성에 참여했고, 이후에 후배 조각승인 회감이나 제자인 초안 스님 등과 함께 작업하며 자신만의 조형적 특징을 갖춘 작품을 만들었다.

관해 스님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624년 음력 9월에 응원·고한(高閑)·인균 스님과 함께 순천 송광사 응진당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소조십육나한상(보물) 제작에 참여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당시 관해 스님은 열 명의 조각승 중 여섯 번째로 기록돼 있어, 1620년대에는 조각승 집단 내에서 중간급 보조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633년 10월에는 인균 스님을 도와 김제 귀신사 영산전의 소조석가여래좌상과 십육나한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제작했는데, 이때는 열두 명 중 네 번째 기록돼 이전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해 스님은 1643년 음력 5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주 성전암 목조여래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수화승으로 제작했다. 이 불상 조성에는 회감(懷鑑)·설의(雪儀)·인영(印英)·초안(草安) 스님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 중 회감·인영·초안 스님은 1660년대 호남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한 조각승들이다. 불상 한 구(높이 59㎝)를 여섯 명이 두 달 동안 제작했다는 기록은 조선 후기 일반적인 불상 제작의 상황에 비추어 다소 긴 편이므로, 작은 사찰이나 암자 전각에 삼불상(三佛像) 또는 삼존상(三尊像)을 조성한 가운데 한 구가 지금의 성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일 가능성이 높다.

관해 스님은 1648년에도 약 석 달 동안 11명의 조각승과 함께 남원 백장암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소재 미상, 조성발원문만 있음)을 수화승으로 제작했다. 이어 1650년에 김제 금산사 대장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상(군산 동국사 봉안, 보물)을 제작할 때 응매(應梅) 스님을 도와 부화승으로 참여했으며, 당시 공덕주는 관해 스님과 협업하던 회감 스님이었다.

1651년에는 진주 단속사 삼존불상과 통영 안정사 삼존상(소재 미상, 조성발원문만 있음)을 수화승으로 회감·성현(性玄)·인영 스님 등 13명과 함께 만들었고, 1653년에는 장성 백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수화승으로 제작했다. 다만 이 불상은 부화승 초안 스님이 1654년에 제작한 고성 화암사 안양암 목조지장보살좌상(속초 보광사 봉안, 도 유형문화유산)에서 볼 수 있는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매우 유사해서 관해 스님이 상징적 존재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다.

현재 확인되는 관해 스님의 활동 기간은 1624년부터 1653년까지로 약 30년이다. 기록과 현존 작품을 바탕으로 보면 스님은 1600년 전후에 태어나 1610년대에 수련기를 거쳤으며, 1620~1630년대에는 응원·인균 스님이 주도한 불사에서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했다. 이후 1640년대부터는 수화승으로 독립적인 조각승 집단을 이끌면서 불상 조성 활동을 했으며, 165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관해 스님은 주로 호남 지역 주요 사찰의 영산전이나 명부전 같은 부속 전각에 불상을 제작했다. 그중 수화승으로 주도한 작업은 진주 성전암, 통영 안정사 등에서 확인된다.



관해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진주 성전암 목조여래좌상(1643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



관해 스님이 부화승으로 제작한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좌상(1650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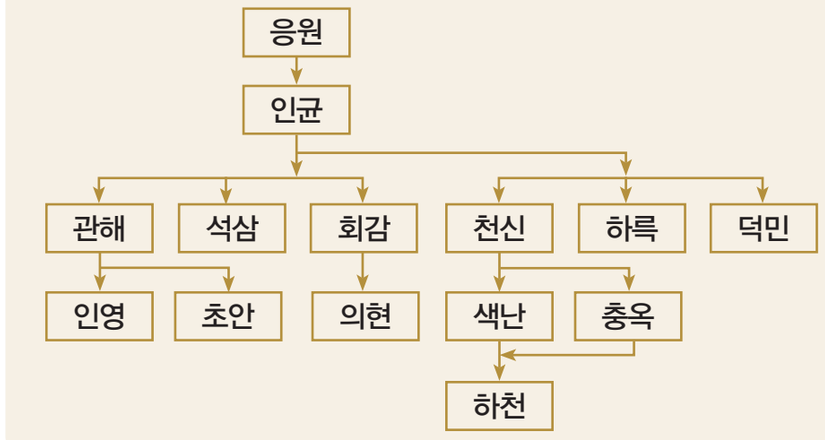
관해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장성 백양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53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응원·인균 스님 잇고 30여 년간 활동**

**1640년대부터 수화승, 회감 스님 등 협업**

**진주 성전암·장성 백양사 등에 불상 조성**

관해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관해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응원(1613~1635, 이하 활동 연대)→인균(1614~1662)→관해·석삼(釋森, 1623~1640)·회감(1633~1666)→인영(1643~1657)·초안(1653~1659)으로 이어진다.

관해 스님이 주도해 만든 불상 가운데 현존이 확실한 작품은 진주 성전암 대웅전 목조여래좌상이다.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녹색 비단의 묵서(墨書)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1643년 음력 5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관해·회감·설의·인영·초안 스님 등이 협력해 조성했다.

이 목조여래좌상은 높이 59㎝의 중형 불상으로, 상반신을 곧게 세우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차분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육계(肉髻)와 뾰족하게 표현된 나발(螺髮), 이마 위 중앙에는 반원형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는 낮은 원통형 정상계주(頂上髻珠)가 표현됐다. 얼굴은 각진 형태로, 가늘게 뜬 눈과 곧은 콧대, 미소를 머금은 입이 조화로운 인상을 준다. 목 아래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안정된 비례감을 보인다.

착의법은 대의(大衣) 안 오른쪽 어깨에 부견의(覆肩衣)를 짧게 걸친 이중 착의 형식이다.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린 동작의 영향으로 대의 자락은 가슴 부분에서 V자형으로 주름을 만들며 나머지 옷자락은 팔과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복부에서는 부견의가 대의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형태가 나타나며, 하반신의 대의 주름은 중앙의 길게 늘어진 주름을 축으로 좌우가 대칭되게 표현됐다.

왼쪽 무릎에는 나뭇잎 모양의 소맷자락이 덮여 장식적 효과를 더한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상단을 수평으로 정리한 뒤 대각선 방향으로 접어 마무리했다. 뒷면은 목둘레를 감싸는 대의 끝단과 왼쪽 어깨에서 길게 늘어진 자락으로 구성된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태로, 조선 후기 석가여래를 제외한 여래상이나 보살상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관해 스님이 주도해 제작한 불상 중 현존이 확실한 작품은 이 한 점뿐이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과 안정적인 신체 비례, 오른쪽 어깨에 짧게 늘어진 대의 자락, 하반신의 나뭇잎 모양 소맷자락 등은 스승인 인균 스님의 양식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 준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후배인 조각승인 회감 스님이나 초안 스님에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556호 | 15 | 전면광고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워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33평
-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광명선원 043-224~2474
010-3222-2474

##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5번지 임야 130평
- 836번지 밭전 300평
- 총 430평, 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 3층 건물 중 3층 위치, 약 60평
- 대법당, 소법당, 모임실, 공양간 등
- 창고, 남녀 화장실, 10평 테라스
- 프로젝터, 방송장치 등 구비 (강의 진행 바로 가능)
- 월세 : 100만원 • 보증금 : 2000만원
- 시설 권리금 : 협의

010-3269-9847

##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8000만원

010-5804-5100

##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 조경, CCTV 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격 문의 바람

010-5635-9499

## 지상권 주택(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 건물 : 한옥+양옥 방3개
- 아미타3존불, 탱화 장구 일체, 텃밭
- 가액 : 4500만원 (년 도지 40만원)

010-5726-1366

##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배밭골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금액 문의 (성북구청 보증금 5000만원 있음)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 보호 및 색채 보존제

##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제 FB25-07-0032호

國寶 明油·蘇子油

# 명유·소자유

## 단청보호, 색채 보존제

## 발수코팅·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사용처 : 문화재(단청마감재), 색채 보존제, 사찰, 한옥, 공예품, 민속품, 목재 보호 및 코팅이 필요한 모든곳, 경첩, 놋쇠 등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 010-3747-2111
TEL | 031-451-6232 FAX | 031-451-6238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1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안내

1556호 | 16 | 전면광고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마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화엄경》에서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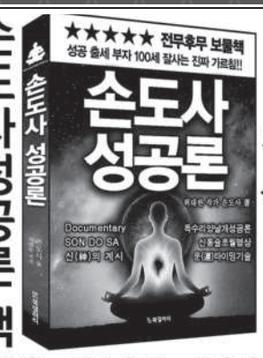
##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손도사성공론 꼭 읽어봐주세요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 희귀병 상담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무엇인가 알면서도 해결 못하시는 분
•매일같이 몸이 아프신 분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으신 분
합천군 가야면 죽전길 132-1 법정사 해산스님
010-7321-0404

## (사찰행사)범음범폐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 무료공개강좌

명리. 육효☞12.11(목) 14:00
영가 찾는 법☞12.11(목)16:00
•내 용:기초부터 실전완성(4개월)
•수강료:1개월 무료, 월 15만
•장 소:서울시 관악구 중앙길7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백암역리원 010-9150-2284

##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한국전통무용(춤)
• 전 통 민 화(그림)
## 자 격 증
1급~2급 지도강사
-간단한 절차로 취득 기회-
대한민국장인포럼
서울시 중구 수표로 22 아세아빌딩602호
상담 010-3007-1183

##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한달 시주금 문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6번지4
010-6333-1488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 종류 | | 크기 | | | 수량 |
|---|---|---|---|---|---|
| 향로(스텐) | 特大 | 지름 20cm | 높이 18.5cm | 내부 13cm | 5kg |
| 향로(스텐) | 大 | 지름 17.5cm | 높이 18.5cm | 내부 11.5cm | 3kg |
| 향로(스텐) | 中 | 지름 13.5cm | 높이 16cm | 내부 10cm | 1.5kg |
| 향로(스텐) | 小 | 지름 12cm | 높이 12.5cm | 내부 8.5cm | 1kg |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덕암사
• 주 지 : 해선 스님(속명 : 이순희)
• 주 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515-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대한불교선학원 이사장 법하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선암사
• 주 지 : 정수 스님(속명 : 손현진)
• 승 번 : 101-0632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10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법하

## '종단 공고 알림' MOU 제안

현대불교신문사는
귀 종단과 2025년 '종단 공고 알림'
업무협약을 통해 종단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이취임, 종도 모집, 종단 행사 공고 등
각종 공고를 많은 곳에 전하여 종단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탈종공고 접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서정원의
## 불교미학산책

㉒ 남산 1

# ‘법화경’ 영산 위에서 말하려 했던 것

이번 산책에서는 동국대 서울캠퍼스를 둘러본 긴 시간 동안 이름만 언급된 남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동국대가 남산에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남산이 동국대의 전제란 관점에서 출발하면, 지금에서야 말하기는 멋쩍지만 필자가 수차례 연재하는 동안 ‘미학’이란 전제를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산책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라도 미학으로 동국대와 불교를 톺아보는 작업의 전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듯하다.

필자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점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법화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겉으로는 그리 대단한 인연이 아니다. 학부 저학년 시절 어쩌다 얻어 보게 된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란 책 덕분이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 전 당시로서는 40년이 다 돼 가는, 한마디로 다소 낡은 연구집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사실상 처음 본 전문학술서였기에 불교를 연구한다는 의미가 어렴풋하게라도 잡힐까 싶어 열심히 읽어 봤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란 것 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처음 만난 벽이랄까, 그 충격은 상당히 컸다. 논문 몇 편을 모아 놓은 책이기에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없어서일까, 개별 논문들을 몇 번이고 통독했지만 읽었다는 사실 외에 해변의 모래를 아무리 꽉 움켜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지듯 글자들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그중 손아귀에 남는 모래알 세 글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법화경〉이었다.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란 제목에 걸맞게 그 책은 ‘대승경전 성립론’에 한 챕터를 할애했는데, 그 중심에 〈법화경〉 성립론을 먼저 설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경전들의 성립론을 구성했다. 말하자면 〈법화경〉이 북극성이고 다른 경전들은 이를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별들과 같았다. 필자가 이해한 것은 〈법화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뿐이었다. 그래서 〈법화경〉이나 ‘법화’란 단어가 들어간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그다음 만난 것이 천태였다.

천태 자체는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법화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경전을 바탕으로 전(全) 불교를 재편하고 있는 천태가 이해될 리 없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인연으로 천태를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필자는 청개구리처럼 화엄학을 들으며 천태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한 동국대 서울캠퍼스 전경.

**남산서 미학으로 동국대·불교 톺아보기**
**대승불교 주축 ‘법화경’ 통이해 난해**
**경전을 이해·해석 대신 감상하게 돼**

필자가 학부생이던 당시, 지금은 은퇴하신 해주 스님이 화엄학을 지도하셨는데 수업이 시작되면 곧바로 무진법문을 풀어내셨다. 의상 대사는 오척신의 몸 그대로가 법성신이라고 했는데 해주 스님은 바로 그 오척신의 몸으로 화엄법계를 펼치시는 분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다.

그런데 화엄의 피할 수 없는 숙적이 바로 법화 아닌가. 대승불교의 지극(至極)이 누구인지를 두고, 화엄은 스스로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특별한 ‘별교일승’으로, 법화를 일승이기는 하나 아직 방편이 남아 삼승과 함께하는 ‘동교일승’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법화를 말하기 위해서라도 천태를 해야 함을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사 때는 화엄은 교학만 있고 천태는 교학과 수행을 일치시킨다는 점에 착안해 그 우위를 말하기 위해 천태의 교관일치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다. 나름 천태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하기에 아쉽지 않게 쓴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문을 작성하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천태의 핵이 〈법화경〉이 아니라 원교(圓教)에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천태는 법화주의가 아니라 원교주의라는 말도 시기를 비슷하게 해 다른 연구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개구리로서 또 한 번 천태가 아니라 순수하게 〈법화경〉을 내 언어로 곱씹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됐다.

이때까지는 ‘이해’, ‘해석’이란 틀 안에서 〈법화경〉을 분석하겠다면서 달려들었다.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던 학부생은 이제 죽어서 없고 나름 연구자 구색을 갖춘 과정생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나 덤벼든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법화경〉을 말하지 않은 조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동아시아 불교 전체에서 〈법화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자의 한 생애가 걸릴 일이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다시 여러 조사들의 해석과 이해가 〈법화경〉의 문맥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누구의 이해도 〈법화경〉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러 선학들은 〈법화경〉의 특정 부분과 문장을 토르소처럼 잘라 필요한 부위만 가져가 요리했을 뿐, 경전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는 연구는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런가’하면서 〈법화경〉을 읽고 또 읽었다.

또다시 충격을 받은 것은 〈법화경〉에 문맥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법화경〉은 구절구절 따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경전 전체를 통째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제야 왜 조사와 선학들이 〈법화경〉을 토막 내 그 부분만을 경전의 전체인 마냥 인용했는지 알게 됐다. 본래 이해와 해석의 측면에서 〈법화경〉은 알기 어려운 경전이며 선학들 또한 자신의 알음알이에 맞춰 이 경전을 꾸겨 넣거나 빵틀로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 내어 정돈한 뒤 그릇에 담아 내놓은 것이었다.

연구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아니, 연구방법이라기보다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해’와 ‘해석’을 배제한 연구방법이라니. 사실 그때 살짝 공부를 놓게 됐다. 별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충실히 과정생 시절을 보내는 척하면서 도피하듯 다른 철학, 이론 책들을 보기 시작했다. 별다르게 불교를 읽어 갈 길이 없어서 경전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때 도피하듯 찾아 읽은 책들 가운데 ‘미학’을 주제로 한 것들이 있었다. 해석의 반대로 감상을, 이해의 반대로 스타일을 말하고 있었다. 그제야 필자는 〈법화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을 감상해야 함을, 그래야만 〈법화경〉을 통짜로 이해하게 됨을 직감하게 됐다.

(다음호에 계속)

〈동국대 박사〉

# 수행·견해 잃은 이와는 가까이 말라



법공 스님의
## 〈지장십륜경〉 강의

㊹ 삼승의 바른 법을 지키는 길

**친근해야만 할 승려와 사람[親近供養僧及人]**

“선남자야, 무량한 유정들이 계율을 깨뜨리고 악행하는 비구들을 친근하면 모든 선법을 잃고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천상에 나서 열반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승도(勝道)사문을 친근하고 공양하며, 그에게 삼승의 긴요한 법을 묻고 들어야 하며, 혹은 시도(示道)와 명도(命道)사문을 구해야 하고, 만일 그런 삼도의 사문이 없으면 오도(汚道)사문 가운데서라도 스승을 구해야 하느니라. 비록 계율은 깨뜨렸지만 바른 견해가 있고, 뜻과 수행을 갖추었으면 마땅히 찾아가 공양하고 삼승의 긴요한 법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수행과 뜻과 견해까지 깨뜨린 사람은 찾아가 친근 공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 그가 계율은 깨뜨렸더라도 삿된 견해가 없고 뜻과 수행과 견해를 갖추었으면 마땅히 찾아가 삼승의 법을 물어야 하나, 그를 경멸하거나 헐뜯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삼승 중 한 승(乘)을 택하여 배우거나 정진하더라도 다른 승을 경멸하고 헐뜯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가 삼승 가운데 다른 한 승이나 한 게송을 헐뜯으면 그와 친근, 동행,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함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만일 유정 등이 삼승 가운데 한 승을 헐뜯고 비방하거나, 삼승 모두를 비방하는 사람을 친근하여 법을 묻고 들으면 이 인연으로 모두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으면서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사신문송본생의 인유(捨身聞頌本生의 引喩)**

“왜냐하면 선남자야, 나는 과거에 보살행을 닦아 위 없는 지혜를 증득하려 할 때, 성문승이 설하는 바른 법이나 한 게송을 구하기 위하여, 내 몸의 손, 발, 피, 살, 가죽, 뼈, 머리, 눈, 뇌수 등을 다 버렸고, 독각승이 설하는 바른 법이나 한 게송을 위해 내 몸의 모든 것(손, 발, 피 등)을 버렸으며, 혹은 대승이 설하는 한 게송을 위해 내 몸의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괴로움을 이긴 끝에 삼승 중 (그 하나를 얻었고) 한 게송이 가르치는 법을 얻었으며, (얻었을 때마다) 깊은 환희심을 내어 공경하고 받들어 지녀, 설한 그대로 수행하였으며 쉬지 않고 무량한 겁을 지내면서, 일체 고행을 수행하고서야 위 없는 지혜의 과(果)를 증득할 수 있게 됐고, 또 저 유정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삼승의 바른 법을 설명해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한 게송만이라도 비방하거나 감추거나 없애서는 안 되며, 그것을 공경하고 읽고 외우며 묻고 들으면서 굳은 서원을 세워 증득하기를 구해야 하느니라.”

**삼승의 호지(三乘의 護持)**

“선남자야, 이같이 삼승에서 나온 요긴한 법은, 삼세의 항하 모래 수보다 많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호지하시는 것이니라. 그것은 일체유정을 생사의 큰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이며, 삼보의 종성을 흥성하게 해서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그러므로 이 삼승의 바른 법을 두루 믿고 공경해야 하며 비방·방해하여 없애서는 안 되느니라. 만일 누구나 이 삼승의 바른 법이나 한 게송만이라도 비방·방해·은폐하거나 없애면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야,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 거사 등은 어리석으면서도 총명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 삿된 견해로 질투하며 나쁜 벗을 친근하나니 이는 삼승의 성현의 법기(法器)가 아니니라. 그리하여 성문승의법을 조금 듣고 익히기만 해도 독각승과 대승의 법을 비방하며, 혹 독각승의 법을 조금 듣고 익히기만 해도 성문승과 대승의 법을 비방하며 널리 펴지 못하게 하느니라. … 이렇게 대승의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일컫고, 스스로 어리석고 교만한 힘으로 자기가 익히지 않는, 삼승의 바른 법을 비방하고 방해해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하며 (자기가 익히지 않는) 삼승법을 배우는 사람을 질투하며,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며 그 위세를 없애느니라.”

**이사의 호지(二事의 護持)**

“선남자야,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마하살은 일체의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큰 자비심으로 두 가지 일을 호지하신다. 첫째는 삼보의 종성을 흥성하게 해서 항상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 세속을 버리고 출가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는 것이요, 둘째는 삼승에서 나오는 긴요한 (법인) 사성제(四聖諦) 등과 상응하는 바른 법을 호지하시는 것이니라. 이 같은 두 가지 일은 오직 부처님과 보살들만이 능히 호지할 수 있으며, 성문이나 독각승 등이 할 일이 아니며 또 백천 나유타 수의 대범천왕·제석천왕·전륜성왕 등은 호지할 수 없느니라. 미래세 이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 등은 나의 법에 의지해 출가하고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이를 보면 … 음식을 주지 않고 몸과 목숨을 해치느니라. 그들은 나의 모든 제자를 헐뜯고 욕하고 벌주며, 깊은 나의 법을 비방하고 없애려 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함께 호지하시는 삼승의 바른 법을 방해·은폐해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하느니라.”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폐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㉒ 소설_양주길을 걷다

▶한줄 요약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인 소설.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볕 사이로 5도 이하의 추위가 시작돼 사찰도 겨우내 먹을거리 준비로 분주한 때다.



# 칼바람 속 첫눈이 전하는 겨울 풍경

화염 같은 더위에 한 방울의 물이 귀하듯, 깊은 어둠 속 여린 등불이 태양처럼 귀하듯, 더는 물러날 곳 없는 겨울의 칼바람을 견디게 하는 것은 자그마한 온기. 그리고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그리운 어떤 곳이다.

저기 천보산 너른 들판 위,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왕을 기다리며 잠든 왕궁이 있다. 마르지 않는 감로의 물이 메마른 목을 적셔 주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깊은 밤 찾아올 이를 기다리는 곳. 첫눈 내리는 어느 날, 그렇게 돌아올 누군가를 위해 영원의 궁전은 겨울 산을 지킨다.



한양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였던 양주에 태조 이성계가 사랑한 회암사의 거대한 흔적이 남아 전해진다. 1만여 평 부지에 총 8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설계된 회암사지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돼 있으며, 정식 등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궁궐과 같은 양식을 보이는 회암사지 계단.



회암사지 당간지주의 일부.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약 100년 만에 돌아온 3여래 2조사 진신사리.

### 첫눈을 기다리며

눈이 내릴 것이다. 지금의 절기는 소설(小雪).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인 소설은 이름처럼 첫눈과 함께 돌아온다. 겨울이 일어선 입동이 지났으니 곧 눈이 내리고 세상은 완연히 겨울의 풍경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15일간 이어지는 하나의 절기. 옛사람들은 그 절기를 매번 5일씩 나누어 3후(三候)로 삼았다. 그리고 절기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서서히 오르내리는 천지의 기운을 오롯이 기록에 남겼다.

철에 따라 변화하는 만물의 상태나 징후를 뜻하는 '물후(物候)'가 바로 그것. 얼핏 보기에는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이는 겨울 풍경에도 반드시 변화는 있기에, 색이 더해지고 또 물이 빠지듯 그만의 물후를 남긴다.

소설의 모습은 첫 번째 5일은 무지개가 걷혀 더는 나타나지 않고 다음 5일에는 천기(天氣)는 오르고 지기(地氣)는 내리며 마지막에는 그 길이 막혀 완전한 겨울이 된다고 했다.

겨울이지만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볕이 사라지지 않아 '소춘(小春)'이라는 별칭을 가진 특별한 절기. 하지만 자연은 어김없이 제때의 모습을 찾아가기 마련. 소설과 함께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처럼 순식간에 기온은 떨어지고 바람은 거세어지며 평균 5도 이하의 겨울이 시작된다.

서둘러 오는 추위만큼 겨울 채비로 바쁜 것도 바로 이즈음. 전국의 사찰에서도 막바지 김장 울력과 함께 겨우내 먹을거리 준비로 분주한 때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산사의 김치 나눔이 연일 이어지는 것도 주로 이맘때의 풍경.

산사의 처마에는 곶감과 시래기, 호박고지가 차례로 매어 걸리고, 산나물과 고구마, 무말랭이는 바람과 햇살에 몸을 맡긴 채 장독대 위에 펼쳐진다. 겨우내 선방 스님들의 체력을 보해 줄 산야초는 한지에 곱게 싸여 갈무리돼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어느 날이면 늙은 호박이 달큼한 식혜로, 또 단팥과 말린 고구마를 넣어 푹 끓인 죽이 되어 별미가 돼 줄 시간. 겨울의 모든 것은 생장하는 여름의 그것보다 몇 배나 품이 들고, 그래서 더욱 진하다.

점점 절기는 깊어지고 이제 지난여름의 무지개를 삼킨 하늘은 순백의 눈송이로 흘러간 계절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아득히 먼 어느 날의 이야기와 함께.

### 사찰, 혹은 궁궐

경기도 양주시. 해발 500m 천보산 아래 너른 대지 위로 옛 절터의 모습이 보인다. 이곳은 조선 최대 사찰이었던 회암사의 자리. 하지만 절터 또는 폐사지라는 말이 지닌 왠지 모를 처연함과 쓸쓸함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

국내 어느 폐사지에서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사적(史跡).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건물지의 원형을 지키고 버텨 온 이곳은 거대한 성전, 동시에 한 왕의 정신적 쉼터로 기록된다.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수십 채의 건물, 한때 3천여 명의 승려가 머물던 조선 최고의 사찰. 비록 과거의 목조 전각들은 모두 사라졌으나, 가람을 감싸고 있던 축대와 주춧돌, 기단, 거대한 규모의 괘불대만으로도 이곳의 위용은 빛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는 저 크고 아름다운 석가모니 진신사리탑까지.

회암사는 고려 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總本山)이었으며, 조선 초에도 선종 본찰로 크게 번영한 국찰이었다.

그 처음은 고려 말 인도의 고승 지공 선사가 '이곳에 절을 세우면 불법이 크게 흥할 것'이라 하여, 그 제자인 나옹 선사가 대대적인 불사를 이루는 것에서 시작된다. 또 당시 불교계를 사상적으로 이끌었던 지공 선사, 나옹 선사, 무학 대사 등 이 땅의 선승들이 차례로 법맥을 이어 주석한 가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장의 배경에 태조 이성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던 것이다.

태조는 자신의 스승인 무학 대사를 이곳에 모시고 수시로 회암사를 찾았다. 또 왕위를 물려준 뒤 그 스스로 회암사에서 수행에 전념하며 제2의 안식처로 삼았다. 자신이 숨을 거둔 뒤 불교계가 탄압받을 것을 걱정했던 태조는 무학 대사 생전부터 그의 부도탑을 세워서까지 이곳의 의미를 공고히 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던 숭유억불의 거센 난풍은 한 왕의 안식처, 아니 위대한 불법의 요람을 끝내 쇠락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거대한 왕궁은 아주 오랜 시간 긴 잠에 빠지게 된 것이다.

### 두 가지 보물

모든 것을 쓸어 버릴 듯한 광풍은 반드시 저 스스로 힘을 잃고 스러지기 마련이다. 한때 유교 사상에 취해 있던 유생들은 회암사를 불태우려 했고, 자비의 법음을 울렸을 범종은 대신 죽음의 무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라질 뻔했다. 억불정책의 위세에 취했던 어떤 이는 위대한 선승의 발자취를 슬그머니 지우고선 집안의 뫂자리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지난 일이다.

천보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뒤덮였던 회암사지가 세상에 드러난 날. 그리고 반세기가 넘도록 이곳을 되살리려 한 학계의 노력으로 이제 회암사지는 새로운 보고(寶庫)가 되어 사람들을 기다린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00년 이곳에서 국내 고건축 사상 최대 규모의 온돌시설이 발견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서승당(西僧堂). 서승당은 스님들이 머물며 겨울에도 참선할 수 있도록 온돌을 설치한 선원 형태의 대방이었다. 특히 이곳은 〈세계건축사전〉(1979년/세계건축협회)에 오른 경남 하동 칠불사의 아자방(亞字房) 온돌과 유사한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회암사의 온돌은 아궁이 및 부엌, 굴뚝, 계단, 출입시설, 기둥 자리까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당시는 온돌구조가 나라 전반에 대중화되지 못한 시기였지만 이 또한 왕이 사랑한 왕실사찰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리라. 왕의 마음을 쉬게 한 사찰. 그의 영원한 궁궐은 그렇게 오늘날까지 자신의 옛이야기를 전한다.

500여 년 전 겨울, 첫눈이 나리던 그날에도 왕의 마음은 이 고요한 성전을 향해 달렸을지 모를 일이다. 알 수 없이 아득한 미래를 뚫고 그저 저 고고한 종소리와 부처님 곁에 머물기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정쟁의 바람을 뚫고 살아 남은 그는 불법(佛法)을 통해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의지와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저 뜨끈한 온돌과 함께라면 더욱.

한 나라의 왕, 또 가진 것 없이 가난한 500년 전 수행자의 마음도 똑같이 위로해 주었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온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이 두 보물의 특별한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다가올 겨울도, 눈보라 몰아칠 어떤 날도 무섭지만은 않은 것이다. 〈작가〉





대행 스님



#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에 오직 자기 주인공부터 믿어야 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림 · 최주현

모두가 공했다면,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음은 모양이 없느니라." 그런데 난 애들도 알아듣기 좀 쉽게 하느라고 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걸림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법의 모든 것을 다 결정 지을 수 있는 마음이요, 또 유의 쪽으로는 몸이 행하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둘 아니게 굴릴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스님이 또 있었더랍니다. 어떤 스님이 가르치느라고 지금도 낚싯대를, 낚싯밥을 주욱 걸어 놓고는, '요기에 모두 걸리지 않나, 걸리나?' 하고 그렇게 선조들께서 해 놓으셨죠. 천칠백 공안이니 뭐, 여러 가지로 해 놓고, 천칠백 공안밖엔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어느 거 공안 아닌 게 없죠. 해탈 아닌 것도 없고 도량 아닌 데도 없고, 나 아님도 없고 모두가 그런 도리죠. 그런데 주욱 앉혀 놓고 하는 소리가 "너, 쌀 아닌 쌀을 아느냐?" 이러니깐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쌀 까지 않은 게 쌀 아닌 쌀이죠." 했단 말입니다. 허허허. 그것도 맞죠, 맞기야, 응. 하지만 그거하곤 정반대죠. 그래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너는 그 쌀을 씻어서 밥을 할 때에 밥을 하지 않고 밥을 할 줄 아느냐?" 아, 그러고 물으니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너는 밥 아닌 밥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저 "밥 아닌 밥은 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저 잡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 처사 말하듯이 "그냥 잡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지. "음, 너는 그래도 좀 뼈다귀라도 얻은 듯하구나." 이러더라는 거죠. "저것들은 모습, 가죽도 얻지 못했어." 그러고. 그랬는데 또 한 사람한테 묻기를 "먹는 사이 없이 먹을 줄 아느냐?"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스님은 아무 소리 없이 나가더니 수박 한 통을 턱 쪼개 가지고는 터억 갖다 놓고는 삼배를 올리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대뇌의 잠재의식 쪽, 현재 의식 쪽이 다 계합이 됐구나." 하더랍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계합이 됐구나!" 이러고선 "너는 참 골수를 얻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에 껄껄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무걸 떠다 대도 되겠죠. 그리고 이 도리를 공부하면, 책을 보게 되면 벌써 심심하고요, 그 몇 구절 이럭하면 '아,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뜻으로 나오지 말로, 이론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요. 거기 그 뜻에 다 있는걸요.

그러니 앞으로 이 공부 하는 분들은 좀 더 살림에 끄달리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은 넓게 보면 나그네요, 좁게 보면 한 철, 찰나, 하루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다' 이런 뜻을 아십니까? 어떠한 뜻입니까? 하루살이다 하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하루살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나 모두.

시공이 돌아가는데,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 이 소리는 '여러분이 초월해서 돌아가라. 거길 따라서 돌아가라.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걸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라 해도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루도 안 들어가니까. 찰나다 이겁니다. 찰나! 여러분이 찰나찰나 사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금방 드러누웠다 금방 일어났다, 뭐, 금방 전등 켰다가 금방 또 딴 사람 만났다가 금방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찰나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루라는 게 거기 왜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루살이가 모기더러 말입니다, "술 한잔 먹자." 하니까 모기가 "내일 술 한잔 먹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도 있냐?" 그러더라는 거지. 허허허.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진정코 믿는데도 참 그게 일이 영 안 풀리고 죽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건 모두 당신네들 탓이다 이거야. 왜? 그만큼, 가만히 시험을 해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자기 주인공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 있고 한 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야, 정성을 지극히 들이고 갔는데 고만 자기가 아프거나 고만 일이 안됐거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긁어서 부스럼 만든 겁니다, 그게. 왜?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했느냐? '에이, 그것 아리송하고 그거 뭐야? 체계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 그냥 불신하고 생각을 할 때 잘못하니까, 그건 자기가 똑바로 가르치려고 자기가 자기를 지금 지도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삐뚜로 나가지 않도록, 오직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부터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자기가 나오기 이전의 영혼은 바로 엄마 아버지의 정자 난자에 배합이 돼서 삼합이 합해져서 탄생을 하는 거다. 임신이 되는 거다. 자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임신이 되는 거지, 만약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합해져도 영혼이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삼신이라고 했고, 삼신이 받아들여야, 삼신이 합해져야 임신을 한다고, 그래서 삼신에게 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삼신도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생각에서 여러 가지 찰나찰나 하시듯이 그렇게 보살의 이름도 많고 부처님의 이름도 많지만,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시고 보살의 그 많은 이름도 바로 부처님의 화신인 이름일 뿐입니다, 다. 그냥, 전체가. 그러니 화신 보살한테 부처님께서는 핵이 돼서 말입니다, 핵이 돼서 위도 아래도 없는 중도의 밥그릇에다가 밥을 한 그릇을 준 것은, 즉 말하자면 보살한테는 칠보가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주고도 줄지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게끔 항상 내고 들이고 해도 항상 되남더라. 이런 게 보살의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모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화신들이다'라는 얘기죠.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 게 부처님이니까. 진리입니다. 하도 이름이 많고 나 아님이 없으니까 뭘로 부처를 세울 게 있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 식구가 그저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친구를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자식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부인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할까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마음의 본래자성불은 한마음이 붙어서 서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아주 견고한 마음으로써 항상 진짜로 믿고 행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아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고라는 걸,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다 깨쳐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자기 몸에서 고라는 거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어디 가서 털퍼덕 앉아도 하나도 걱정이 없고, 먼지 앉을까 봐 걱정 없고, 먼지가 묻을까 봐 걱정도 없고, 기생이 와서 안겨도 걱정이 없고, 내 마음은 물들지 않아. 취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사랑한다고 한 번만 안기면 그냥 붙들고는 죽자 사자 하고 그러니 사고가 안 나? 응? 벌써 낌새를 채지. 이러니 모두, 허허. 에휴, 에휴, 참! (대중 웃음) 여러분이 바보예요, 모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편리하고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랬더래요. 어떤 한 가련한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서 딸이 사는데, 그 딸이 시집도 못 가고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너무 착하게 하니까, 어느 스님이 가다가 참, 불쌍하고 안됐거든요. 마음으로나 뜻으로나 그냥 보시를 듬뿍 한 겁니다. 듬뿍 하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시집가고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어요. 장원을 해 가지고 살림을 다 해 나가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거는 진짜 행(行) 보시며 바로 마음의 보시가 그렇게 컸던 거죠.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이쪽은 이쪽대로 병들게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병들게 하는 그런 마구니가 되지 마세요. 네? 이런다면 정말 이거는 여러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모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보시는 그게 아닙니다. 모두 내가 이런 게 (합장하시며) 다 보시지 보시 좋아하시지 마세요. (대중 웃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효 대사가 파계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보시인 것입니다. 원효 대사가 처음에, 예전에는 장질부사를 많이 앓아서 죽으면 송장을 원두막에다 갖다가 그냥 넣습니다. 넣고는 먹을 거 갖다가 넣고는 돌보지 않습니다. 갖다 버렸지.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들어갔거든요. 컴컴한 데 거기 들어가서 터억 드러누워서 그냥 곯아떨어졌는데, 아주 목이 말라서 배는 고프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죽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주 무척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거기에 장구벌레가 잔뜩 들고, 물이 그냥 하나 고인 데다가 지붕은 새고 그러니깐 그냥 전부 고였거든요, 썩어서. 그런 거를 맛있게 먹고는 터억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구벌레가 우글우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장구벌레를 물하고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구역질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자 구역질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몰랐고,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없었고, 내가 지금은 보고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이 탈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아예 이 해골바가지로 인해서 도를 깨쳤으니까 의상 조사는 의상 조사대로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당나라에 공부하러 안 갔던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은, 생각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낸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는 얘깁니다. 이것도 관문이 될 수 있고 이것도 화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화두를, 이거 배우기 전에 화두를 갖고 하지 말고, 내 몸뚱이를 화두로 알아라 하는 겁니다.

또 한번은 대안 대사가, 즉 말하자면 늑대 새끼가 죽어서 아, 좋은 데로 가라고 염불을 하려고 그러니까 갖다가 턱 놓더니 젖을 먹이더라 이거야. 그 죽은 데다 먹인 게 아니라 산 새끼한테다 먹이면서 이게 바로 천도다 이거야. 거기에서 또 그것도 화두가 될 수 있고 관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해 드리죠. 만약에 젖을 먹이는 거는 방편이고, 내가 그 의식을 갖다가 나한테다가 넣었다고 본다면, 둘이 아니라면 그 무명만 죽였지 바로 내가 된 겁니다. 내 속에 넣었으니 내가 된 겁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항상 그러죠. 좋은 데로 가게 하려면은 내 주인공에 넣으면 그대로다. 그대로 요리가 돼서, 벌써 거기서 한 바퀴 굴러 가지고선 천도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도 또 줄지 않죠. 넣어도 그건 체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떠먹여도 모르신다면 난 어떡합니까? 그러니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이 마음은 체가 없다. 의식 자체가 체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도리를 스스로 증득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관문이 될 수 있죠. 화두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애가도 불렀는데 "도끼 없는 도끼를 어느 누구가 자루를 맞춰 주랴? 그 자루를 맞춰 준다면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서 하늘을 받치련만…."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것도 관문이 되고 화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도끼 없는 도끼의 자루를 맞춰 준다면 기둥 없는 기둥을 깎아 하늘을 받치련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자루를 맞춰 줬더군요. 아, 그러고선 하늘을 받쳤더군요. 그래서 신라가 그렇게 됐더군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원효 대사도 원효 대사답지 않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니까 "그 눈물 흘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소?" 했어요.

>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한 마음, 내가 제일이라는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 **아주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항상 중심에다가 두십시오.**

여러분이 그 뜻을 잘 아신다면, 앞으로 아주 재빠르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이나 서독이나 내가 알기로는 서독이나 또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마음을 갈구하고 있어요. 아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절마다 기복이고, 절마다 죄를 씌워 주고 있어요. 한 민족이면서도 한 불자면서도….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 이게 전부 불자지, 불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입니다. 좋은 말 해 주는 거를 교(敎)라고 하니 그러니 바로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발로 몇백 번을 뛰어 봤자야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지금 세대에. 이 마음이 한 번 뛸 때는 저런 타의 국(國)에도, 국이라는 건 지금 시쳇말로는 혹성을 말하는 겁니다, 타국을. 부처님께서는 그때 모두 모르니까 타국이라고 그랬죠. 서천국이니 타국이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타국에서도, 타국 보살들 일체가 다 여기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찰나찰나 들고 납니다. 우리의 한생각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뛰면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된다면,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보살이며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부처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는 한 부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깨쳐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한자리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한 마음, 내가 제일이라는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항상 중심에다가 두십시오. 중심은 여러분이 깨치지 못했으면 중심이고 깨쳤다면 중도입니다. 또 깨쳤다면 중용이고 깨치지 못했다면은 활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 모두 한도량에 한 도반으로서 공부하시자는 거지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앉았을 때는 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일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요.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할 것은, 여러분이 와서 용건을 얘기하고 그냥 대답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왜냐? 그것은 비밀이니까 말로는 못 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다 공부하신다면 내 속을 다 알아서 같이 아마 등장할지도 모르죠. 여기서 몸뚱이는 항상 말을 하고 보고 이러면서도 삼매에 드는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드는 것이 삼매가 아닙니다. 눈 뜨고, 그냥 치켜뜨지도 말고 내려 뜨지도 않는 도리가 바로 그게 삼매입니다. 그 도리를 말한 거지 진짜 눈을 그렇게 뜨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선이요, 일상생활에서 화두요, 일상생활에서 바로 중용이 나오고 그대로, 나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바로 삼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여기서는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가도 하나로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나투는 거, 수없이 화하는 거…. 천백억화신이 다, 사람들이 산신을 원하면 산신의 모습으로 화해서 응해 주시고, 또 칠성을 원하면 칠성으로 모습을 나투어서 또 응해 주시고, 또는 독성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응해 주시고, 자꾸 몸을 화해서 보이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화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응해 주신다. 그래서 삼십이응신이 응해 주신다. 이러는데 삼십이라는 거는 숫자로 말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가사의한 법, 그거는 저런 혹성도 바로,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이치도 있지마는 만약에 내가 한생각을 하면 타국에 있는 보살들도 또 어떠한 부처님들도 다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생각에 한 찰나에 드셨다가 한 찰나에 나시고 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도리와 법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신다면 인간 된 도리에 정말이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됐다면 그쯤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모습 없는 사람이나 모습 있는 사람이나 다 응해서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 일입니다. 건지는데 건지는 것도 공해서 내가 한 일이 없노라. 내가 한 일도 아니요, 내가 안 한 일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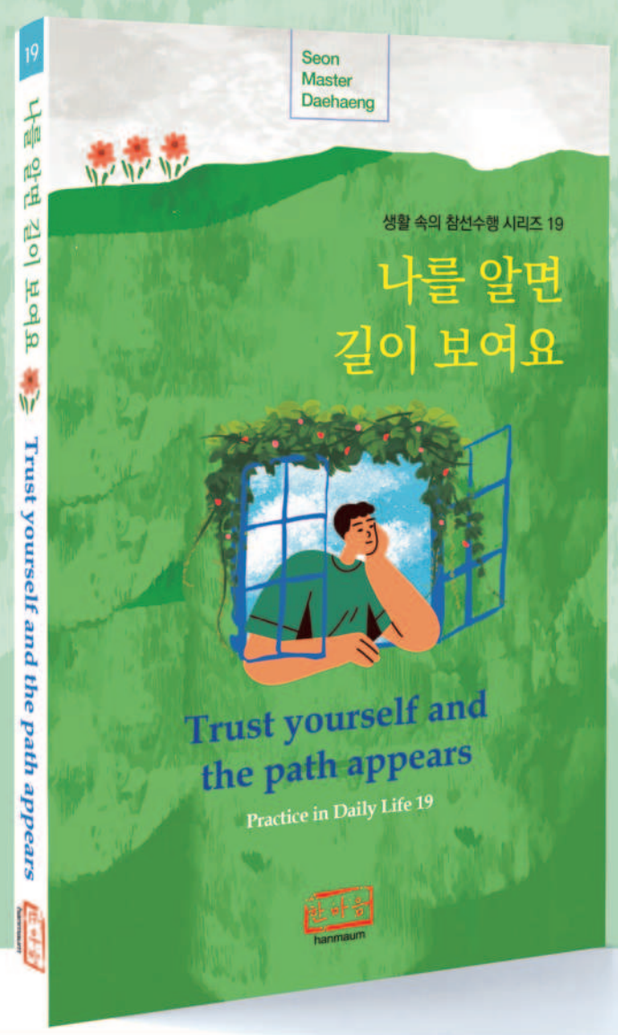
그러니 그분들 석가세존이나 단군 할아버지나, 우리네 육의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이 전부 한 분이지 두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써,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조상은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조상까지도 둘이 아니다 이거야. 내 조상이 본래자성이거든요. 그러니 본래자성불 아버지하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식하고 상봉을 하십시오. 모두 상봉을 해야 합니다. 남북이 터져서 상봉을 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한 몸 안에 부(父)와 자(子)가 있으면 한 몸 안에서 따로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와 자가 상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1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㉒ 의식과 무의식

# 죽어도, 죽지 않는 '마음'의 작용

눈[안근眼根]과 대상[안경眼境]이 만난다[촉]. '눈이 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촉'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다.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또는 판단하려는) 인식 또는 분별의 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주관적 의식화가 되지 않는다.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는 '집착'이 들러붙지 않은 상태다. 보고 있어도 보는 게 아니다.

### 쏜살같은 전개를 선수 치는 '반야'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풀'(김수영 시인)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알아차림이 빠르면 빠를수록, 파도의 전개를 일찌감치 끊을 수 있다. 연속적으로 덩어리지는 현상들의 전광석화 같은 상속(相續), '알아차림'은 그것보다 빠르게 일어나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야 6근과 6경의 만남[촉]이 유발하는 다양한 정신적 물리적 현상의 연계와 그것에의 휘말림을 예방할 수 있다.

알아차림과 거의 동시에 발사되는 반야[慧: 통찰지]로 인해, 조건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상속은 끊어진다. 업행(業行)이 멈추니 업식(業識)은 청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청정도(淸淨道: 청정으로 가는 길 또는 방법)'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알아차림을 못하면 자신이 지은 '습(習: 습관)'대로, 현상은 생겨나고 그것이 '있다'라는 착각(무명)이 일어난다. 결국 거기에 휘말려 행(行: 반응 또는 의도)을 일으키기를 무한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업행은 '오염일로'이다.

정리하자면 "6근과 6경이 만나[촉]→6식이 생겨나 의식화되면→나와 대상[주객主客]이 생겨나고→여기에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며 일어난 자의식은 상온을 근거로) '좋다 또는 싫다'의 반응을 일으키고→그 반응에 (이미 일어난 동일시가) 다시 집착과 갈애가 불러일으키면→생각이 생각을 낳고 망상이 망상을 낳고 번뇌는 번뇌를 낳는 단계"까지 진행돼 버린다.

### 죽음과 재생, 그 과정상의 '마음의 상속'

아비담마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난 데에는 '17심찰나', 즉 '17번의 (조건적) 생멸이 일어나 상속된다'고 한다. 17심찰나는 "①과거의 무의식(바왕가)-②무의식(바왕가)의 동요-③무의식(바왕가)의 멈춤-④오문전향(다섯 감각의 문을 향함)-⑤오식(다섯 갈래의 의식)-⑥받아들임-⑦조사-⑧결정-⑨~⑮속행(자와나, 생각-촉진)-⑯, ⑰경험의 등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의 과정과 동일하다. 단, 죽을 때는 (심장이 약한 상태라) 15심찰나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 또는 '한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상의 전개를 낱낱이 꿰뚫어 보다니! 그저 놀랍다.



살아있을 때든 죽었을 때든(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의 찰나적 생멸과 그것의 상속'은 계속된다. ©강소연

글머리에 (눈과 대상이 만났을 때) 사례로 든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①과거의 무의식에서 ④오문전향까지는 일어났으나 의문전향(⑧결정)의 단계에서 '알아차림'이 들어가서 속행(⑨~⑮)이 부정업(不淨業)의 전개가 아닌, 청정업(淸淨業)의 전개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17심찰나 중 '결정'의 단계에서 반야(통찰지)가 작용해 '속행'은 '청정'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만약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식'으로 이어질 때, '결정'의 순간에 반야가 일어난다면 윤회의 등급은 달라질 것이다.

### 다양한 마음들과 그것의 기능들

오온(색·수·상·행·식) 중에 '수상행식(受想行識)'이 다양한 마음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해당한다. 마음의 분류와 기능은 학파마다 조금씩 다르다. 〈유식(唯識)〉에서는 전5식·제6식(의식)·제7말라식·제8아뢰야식으로 구분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찟따·마노·샨냐·윈냐나 등으로 불린다. 깨달음의 마음도 빤야·쌈파쟈냐·삿띠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마음들로 나누어진다. 특히 마노(Mano, 의意)의 경우, 유식에서는 자아의식을 지칭하는 말나식의 어원인 마나스(Manas)와 연관된다. 이는 남자 또는 사람(또는 인류)이라는 뜻의 영어인 '맨(Man)'의 어원이기도 하다. 유식에서는 제7말나식을 뜻하지만, 아비담마에서는 그 역할이 사뭇 다르다. 마노(의意)는 (17심찰나의 과정에서) 오식의 앞뒤에서 연결을 시켜 주는 매체의 역할을 한다. 오식의 앞에서 오문전향의 기능을, 오식의 뒤에서는 의문전향의 바탕이 되는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의(意)'는 이러한 연결을 통해 '식(識)'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무튼 요지는 우리가 막연히 마음 또는 의식과 무의식 등으로 부르는 개념(덩어리)은 반야로 인해 해체(분해)된다는 것이다. 의(意)와 식(識), 작용만 하는 마음, 과보의 마음, 바왕가, 죽음의 마음, 재생식, 마음과 마음 부수, 조건 마음의 유무 등으로 무수히 쪼개진다. '17심찰나 (또는 15심찰나)'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가 살아 있을 때든 죽었을 때든 (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의 찰나적 생멸과 그것의 상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만이 관건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㉒ 동물 의약품

# 동물 약국 검색 후 품목 미리 확인

"여기 사람 약도 있나요?"
"네? 왜 그런 걸 물어 보시죠?"
"아, 여기 동물 약국 아닌가요?"
"사람 약국입니다. 동물 약도 취급합니다."
"아, 강아지 약만 파는 곳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울산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에서 약국을 운영할 때, 하루 최소 세 명 이상이 약국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내민 채 묻던 질문이다. 약국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취급 품목으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동물 의약품을 적어 놨고, 그중 동물 의약품 로고가 조금 눈에 잘 띄는 귀여운 강아지 모양이었을 뿐인데, 고객들은 동물 약국으로 오해를 하곤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까?'란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A4 용지에 [사][람][약][도] [있][습][니][다]라고 한 글자씩 크게 인쇄해 약국 외부에 덕지덕지 붙여 버렸다. 인테리어적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자행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인지 이후 "사람 약도 있냐"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약사는 보건소에 동물약국 개설 신청을 해 허가를 받으면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분된 구역에 동물용 의약품을 진열할 정도의 독립된 공간과 동물 약을 짓기 위한 조제 공간, 냉장고 등의 온도 조절장치, 약국 외부 간판에 '동물 약국' 명시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은 동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동물의약품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동물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크게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과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이 있다.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처방대상 의약품은 주사용 항생제와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와 예방 접종 백신을 비롯한 백신류가 있다. 이러한 처방대상 의약품은 동물 약국에서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 약국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예방 접종 백신의 경우, 2022년 이전에는 동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었으나 현재는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한다.

동물용 항생제와 항균제도 처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지정되긴 했는데, '약국 개설자 예외조항'이 있어 입으로 먹이는 경구용 항생제와 바르는 연고 같은 외용 항생제는 처방전 없이도 동물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백신·항생제 등 수의사 처방대상**
**기생충 약·영양제는 일반 의약품**
**일부 제품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

이 제품들은 판매 기록 대상 의약품에 해당해 구매 시 판매일, 제품명, 판매량,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니 약국에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묻더라도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으쓱해질 필요까진 없다.

수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동물용 의약품으로는 심장사상충 약을 비롯한 구충제와 벼룩,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 구제약, 소화제, 피부 상처 치료제, 영양제 등이 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심장사상충 약과 벼룩, 진드기 같은 외부 기생충 약이다. 심장사상충 약은 입으로 먹이는 경구용 제품과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 모두 있는데, 경구용 제품은 알약으로 삼키거나 부숴서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것, 소고기나 닭고기 맛이 나서 맛있게 간식처럼 바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제품 등 종류가 몹시 다양해 원하는 제품을 취향에 맞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벼룩, 진드기와 같은 외부 기생충 약은 제품마다 기생충의 구제범위가 다르고, 한 달에 한 번 바르는 제품, 3개월에 한 번 먹이는 제품, 목걸이 형태로 걸고 다니는 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어떤 제품이 적당할지 알아보고 상담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설사약, 지사제, 멀미약 같은 소화기계통 약이나 비타민이나 영양강장제 같은 영양보조제, 소독약이나 연고 같은 피부 상처 치료제 모두 동물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요즘은 기억하기 쉽도록 '개토톱', '견옥고', '개시딘'처럼 센스 있고 위트 넘치는 이름의 동물 약이 출시되고 있으니 동물 약국에 가면 그 제품명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약국 안의 숨겨진 재미 중 하나일 것이다.

동물 약국이 늘고 취급하는 제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원하는 제품을 동물 약국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원하는 제품이나 궁금한 제품을 동물 약국에서 구매하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OO동 동물 약국'을 검색한 뒤 그곳에 전화해 해당 제품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5년 기준이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품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동네약국에 전화해 미리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필자가 보장컨대, 당장 약국에 찾는 제품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친절한 동네약국 약사님은 그 약을 별도로 주문해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건강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 우리는 '마음의 스승'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다. 소외되고 힘겨운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작은 온정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일지 모른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정성은 때때로 고통보다 큰 희망이 돼 주고 그 희망은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가 된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 불자들은 법회 날이면 하던 일도 멈추고 법당으로 향한다. 손끝으로 펼쳐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한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비장애인인 우리가 더 깊은 수행과 실천을 다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오래전 그들을 만났을 때는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이들이 많았다. 육체적인 장애는 마음의 벽이 되기도 했고 세상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며 그들의 생각은 서서히 변화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자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이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민다. 도움만 받던 사람들이 기꺼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했고, 그 변화는 그들 자신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됐다.

전철역에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는 시각장애인 불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광림사 법당까지 안내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있다. 서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끼며 부처님 앞에 다가서서 합장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환희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진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헤맬 때 두 손을 잡아 길을 안내해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 법회를 마치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봉사를 하며 서로의 육체적 아픔을 달래준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베푼다는 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만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남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마음 써야 할 일은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일이다. 그 친절함이 따뜻한 마음이 되어 전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가난한 이에게는 물질적 도움이,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는 자비심이, 진리를 찾는 이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가가는 것이 참된 나눔이 된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손길 하나면 충분하다.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웃었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 주었다. 부처님 앞에서 손을 모으며 우리는 말보다 깊은 마음의 언어로 '자비'를 배웠고 서로의 길을 밝혀 주는 '마음의 스승'이 되었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㉒ 소요 태능 선사의 오도송

# 참된 불성의 눈을 뜨고 살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의 하룻밤 주막(蘧廬天地假形來)**
**얼마나 많은 생을 나고 죽고 했는가(慙愧多生托累胎)**
**겨울밤 고사목 부러뜨리는 흰 눈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玉塵一聲開活眼)**
**깊고 밝은 달만 내 마음에 비치네(夜深明月照靈臺)**

소요당(逍遙堂) 태능(太能, 1562~1649) 선사는 전라도 담양 사람으로 백양사, 금산사, 연곡사에서 교화를 폈다. 당대 불가의 양대 산맥인 부휴(浮休) 대사에게서 경전을 배우고, 뒤에 묘향산에 찾아가 휴정(休靜) 대사에게서 참선 공부를 해서 선법을 계승했다.

부휴 대사는 승보사찰인 송광사를 중심으로 지리산의 맹주였고, 휴정 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나라를 구한 호국 대성사이다. 부휴 대사의 제자 3걸(충휘·응상·소요) 중에 한 분이며, 서산 대사의 문하 4대파(사명파·편양파·정관파·소요파) 중 하나인 소요파를 이룬 선교(禪敎)의 거장이다.

위의 오도송은 〈소요당집〉에 나오는 선시다. 〈소요당집〉은 그가 입적한 후 150년이 지나 편찬됐다. 서산 대사의 제자 가운데 특히 시문에 뛰어나 스승의 선시를 계승하여 자연을 노래한 그의 시가 일반 사대부에게도 회자돼 〈동문선〉에 수록됐다.

오도송의 주제는 인생의 무상함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노래한다. 불교 교리의 핵심인 무상·무아(공)·중도·연기·마음 등을 운율을 가미하여 게송으로 읊는 것이다. 소요 대사의 선시는 깨달음의 세계를 불교의 전문 용어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수행 체험을 사실적으로 자연에 비유하며 상징을 통해 표현해 문학성이 뛰어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사들의 선시(禪詩)는 불립문자인 깨달음의 경계를 시적인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시인은 시에 선적인 깊은 의미를 담아서 삶의 의미를 통찰해 시를 단장했다. 이렇게 선과 시가 상호 교류하고 만나 동방의 시문학사를 빛냈다.

소요 대사의 오도송은 전반부에서는 중생의 삶을 쉽고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후반부에서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은 광명의 세계를 설하고 있다. 1·2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의 하룻밤 주막, 얼마나 많은 생을 나고 죽고 했는가"라고 무상한 인생의 모습을 읊고 있다. 최희준 가수가 노래를 부른 '인생은 하숙집' 가사와 같이 친근감이 있는 시구이다.

인생은 나그네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가 하룻밤 자고 떠나는 여관, 주막집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윤회를 되풀이하는 고륜중생(苦輪衆生)을 노래하고 있다.

3·4구는 "겨울밤 고사목 부러뜨리는 흰 눈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 깊고 밝은 달만 내 마음에 비치네"라고 미몽의 잠에서 문득 깨어난 오도(悟道)의 세계를 읊고 있다. 지혜광명인 불성을 발견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나오면 둥근 달이 떠 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보배창고가 있다. 눈을 뜨면 바로 월광(月光) 심주(心珠)가 비춘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혜의 광명인 불성이 빛나고 있다. 소요 대사는 깊은 산사에서 밤새 내린 눈[백설]이 쌓여 그 무게로 천년 고사목이 부려지는 소리를 듣고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색성오도(色聲悟道)이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바라본다. 내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본래마음인 자성[불성]을 발견했다. 견성(見性) 성불한 것이다.

소요 대사의 오도송은 무상한 인생을 살면서 참된 불성의 눈을 뜨고 살라는 가르침이다. 무상한 인생을 살면서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까지 보태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허탕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 명상 주도권을 AI에 맡길 것인가

인공지능(AI)이 마음의 상태를 읽고 명상 과정에 개입하는 기술은 이미 일상이 됐다.

뇌파 측정기와 감정 분석 앱, 자동 피드백 명상 기기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명상은 더 이상 수행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기술이 명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최근 한국불교상담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AI가 수행의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집중이 흐트러지면 음악과 진동이 즉각 반응하고, 가상현실(VR)은 맞춤형 선방 이미지를 제공한다.

일부 기술은 사용자의 상태를 수치화해 수행이 '깊다'거나 '얕다'는 평가까지 제시한다. 명상의 해석과 조절이 수행자가 아닌 '기술'에 의해 이뤄지는 흐름이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

내면 데이터의 처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감정·주의·불안 등은 종교와 상담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인데, 시중 기기 상당수는 이를 수집해 저장하고 외부 서버로 전송하기도 한다.

신행 과정에서 생성된 내면 기록이 기업의 데이터로 전환되는 셈인데, 이를 둘러싼 윤리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AI 명상이 심리치유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상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개인사·감정·관계적 맥락을 구분하지 못한 자동 피드백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AI가 명상법을 안내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의 판단과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지금 불교에 필요한 것은 기술을 배척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경계할지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AI는 명상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수행의 목적까지 기술이 규정하도록 맡길 수는 없다. 기술이 진화할수록 수행의 본질은 더 분명해야 한다.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정할지 선택하는 일, 그 책임은 이제 불교계에 주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 사람의 향기, 덕향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화엄경〉 '십무진장품'에서는 열 가지 다함 없는 창고에 대해 설하고 있다. 열 가지 창고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는 신장(信藏), 계율을 실천하는 계장(戒藏),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아는 참장(慚藏), 남에 대해 창피함을 아는 괴장(愧藏),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듣고 배우는 문장(聞藏), 나눔의 보시를 실천하는 시장(施藏), 다함 없는 지혜를 갖춘 혜장(慧藏), 바른 생각을 갖춘 염장(念藏), 가르침을 들어 지니는 지장(持藏), 그리고 설법 능력의 변재를 갖춘 변장(辯藏) 등이 있다.

대승보살이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열 가지 다함 없는 창고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산, 칠성재(七聖財)로 설해지고 있다. 수행승이 갖춰야 할 일곱 가지 정신적 재산은 믿음의 재산, 계행의 재산,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의 재산, 그리고 지혜의 재산 등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시 〈앙굿따라니까야〉의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있는 세 가지 향기로 축약된다. 나눔의 향기인 시향(施香), 지킴의 향기인 계향(戒香), 배움의 향기인 문향(聞香)이다. 이러한 향기는 바람을 타고도 퍼지고 바람이 없어도 퍼지며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삼재팔난 시 대승보살 역할 중요**
**자신과 남을 풍요롭게 하는 덕향**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 확산되길**

부처님 재세 시의 설법에서 비롯돼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은 나눌 줄 알고 지킬 줄 알며 배울 줄 아는 사람의 향기이고,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덕향(德香)'이라 할 수 있다. 덕향은 자신과 남을 더 풍요롭게 하는 성스러운 재산으로 확대되고, 이를 갖춘 대승보살들이 중생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고, 나아가 이를 여법하게 설하는 설득능력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가 변혁기의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의 등장과 환율, 무역 문제의 심화 등 사회변화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들겠지만, 특히 스스로를 지켜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고통이 심화될 때 종교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다. 사회가 안정돼 있을 때는 조용한 곳에서 개인적 수행이 가능하지만 사회가 혼란스럽고 삼재팔난이 횡행할 때는 희망과 행복을 나눠 주는 대승보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사회 격변기에 종교지형이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 시대에 바람직한 종교적 역할을 누가 얼마나 많이 실천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우울, 분노, 불안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정신적 의지처가 돼 주고 숨통을 열어 주며 함께 고락을 같이해 주는 종교단체가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출재가 대승보살들의 덕향이 온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 인공지능 시대의 침묵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공지능(AI)이 일상의 거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대, '침묵'은 사라지는 감각처럼 보인다. 우리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와 정보에 반응하고, 대화형 인공지능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입을 다물면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사회과학 연구들은 오히려 침묵이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고 권력을 드러내며 공동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실천 행위임을 밝혀 주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는 특정 의견이 알고리즘에 의해 반복 노출되면서 그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한 다수 의견처럼 보인다. 이는 독일의 커뮤니케이션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1970년대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여론 형성 과정에서 특정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소수 의견을 말하면 배척당할 것이라고 느끼고, 이를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다원적 무지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즉 우리는 실제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다수가 특정 의견을 지지한다고 잘못 인식하게 된다. 알고리즘은 이 과정을 더욱 부추겨, 특정 의견만을 재노출하며 우리의 인식 지평을 좁혀 버린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여론

**침묵, 지배 구조 불협조·저항 전략**
**묵언, 자기성찰·관계 회복의 기술**
**침묵과 묵언 다시 배워야 할 시점**

에 휘둘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3자 효과'까지 결합하면서 사회는 더욱 왜곡되고, 사람들의 행동은 점점 조심스러워져 자신의 침묵을 정당화하기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알고리즘의 노출 구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다원적 무지와 제3자 효과가 서로 얽혀 침묵을 확대하고 여론을 기울게 만드는 디지털 나선 구조를 형성한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결코 무지나 무관심이 아니라, AI 기반 공론장이 만들어 내는 심리적·사회적·기술적 압력 속에서 침묵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은 단순히 사회적 압력의 결과만은 아니다. 의식적으로 선택된 침묵은 오히려 저항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류학자 제임스 C. 스콧은 약자 집단이 공개적 반발 대신 은밀한 저항을 한다고 설명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배 구조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침묵은 일종의 전략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묵언(默言) 역시 이러한 능동적 침묵과 맞닿아 있다. 묵언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수양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여백'의 확보라고 설명한다. 말의 부재를 통해 뇌가 정보 과부하에서 벗어나고 감정적 반응이 조절되며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회복된다. 즉 묵언은 자기성찰만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기술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언어를 학습하고 플랫폼이 우리의 반응을 설계하는 시대에 침묵은 퇴보가 아니라 성찰을 위한 전략적 공간이며, 정보 과잉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종의 지혜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소음의 시대를 건너면서 침묵과 묵언이라는 오래된 실천을 다시 배워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社 說

# 생명이 최우선인 사회를 향한 '경계의 목탁'

지난 10년 동안 하루 여섯 명이 일터에서 귀가하지 못했다는 비극적인 통계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이러한 비극을 더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선언이 조계종이 11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한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재'였다.

이날 법석은 희생된 모든 이의 이름을 다시 불러 기억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불교계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한국 노동자뿐 아니라 스리랑카·네팔·미얀마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 50여 명의 위패가 함께 모셔진 사실은, 우리 사회가 누구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 산재는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약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시대적 고통 외면 않는 자비 실천**
**국가 책임 강조·실질적 대책 촉구**
**추모 넘어선 실천, 시대적 책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생명보다 앞서는 이윤은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불교가 시대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나아가 "이주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자비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산재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사회 안에서 실천하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불교계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고통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 준 무거운 메시지다.

위령재가 지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국정 책임자가 응답했다는 점이다. 위령재에 앞서 유가족들을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하다 희생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산재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나 사업장의 과실로만 축소해 온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으로 읽힌다. 유가족들의 간담회 요청에 "직접 듣고 해결할 길을 찾겠다"고 약속한 점도 주목된다.

이번 위령재가 유족들에게는 치유의 한 걸음이었다면, 우리 사회에는 '경계의 목탁'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그들의 슬픔은 곧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아픔이자 과제임을 일깨웠다. 유족 대표는 발원문에서 "말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더 이상 미뤄 둘 수 없는, 정부·국회·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응답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불교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고, 고통받는 존재 앞에 먼저 다가가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조계종이 산재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행보는 한국 종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제 과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생명 존중을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변화에 실질적으로 나서는 일이다.

거듭되는 희생 앞에서 추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어야 한다. 이번 위령재가 남긴 울림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1월 26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1월 2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1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1월 2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0박 11일간 열릴 예정인 서울세계청년대회(WYD)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천주교 측은 “교황 레오 14세가 방한하는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100만 명 대상 교통안전 보안 통합 관제 시스템, 임시 숙박 시설과 교통망 확충, 190개국 대응 다국어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3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정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고,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공립학교의 특정 종교교육과 종교행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금지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 명시돼 있다시피 서울세계청년대회의 목적은 ‘전 세계 천주교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계청년대회는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제행사가 아닌 천주교의 선교를 위한 종교행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안에는 △시설 신축비를 지원한다 △수익사업을 허용한다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등 불법적인 독소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특별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행사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해야 하는지,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시설 신축을 지원해야 하는지, 왜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위원장과 위원을 국무위원들이 맡아야 하는지 의문만 듭니다. 헌정사상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교 유착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특별법안들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화합을 중시하는바 서울세계청년대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입니다.

꽃과 꽃이 어우러져 꽃밭을 이루는 것을 화엄세계(華嚴世界)라고 합니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는 화엄세계와 같습니다. 만약 한 꽃에만 햇빛과 물을 준다면 그 꽃은 웃자라 그늘을 만들어 꽃밭의 다른 꽃들을 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천주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기 2569(2025)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